







장애예술기획전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 목차

### 인사말

서울문화재단	007
예술의전당	008
효성그룹	009

### 전시 소개

전시 서문	013
전시 전경	019

### 출품작

김은정	035
허겸	051
위혜승	073
곽요한	093
윤하균	111
김승현	129

### 부록

접근성 소개	147
비평 워크숍	151
작가 이력	185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입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2025년 입주작가 6인과 함께 기획전시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를 준비했습니다.

작가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감각적 예술표현이 관람객들에게 공감이라는 경험으로 이어져 새로운 서사로 완성되는 특별한 전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장애예술 작가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오는 2027년이면 2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 예술사에 장애예술을 하나의 장르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입주작가들의 역할과 노력이 컸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획전시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는 제15기 입주작가들이 긴 여름 땀 흘리며 애쓴 흔적들의 총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노력하는 작가들의 창작열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 발전에 뜻을 보태 올해로 3년째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과 사회공헌에 남다른 열정으로 변함없이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해온 효성그룹의 후원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장애예술의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의전당과 효성그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

## 예술의전당 사장

### 인사말

2025년 장애예술기획전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과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여섯 분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신체와 감정, 시간과 상처가 남긴 ‘감각의 기록’을 섬유·회화·설치·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며, 관람객이 각기 다른 감각의 여러 층위와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도록 합니다.

예술의전당은 장애예술인을 비롯해서 청년미술상점, 서예청년단체공동주최전 등 다양한 예술가들과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예술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고 유망한 작가들이 미술계에서 성장하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 멋진 작품으로 참여해주신 곽요한, 김승현, 김은정, 위혜승, 윤하균, 허겸 작가님, 뜻을 같이해주고 지원해주신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님,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 이정원 실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 이재석

##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정원입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도록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넓히기 위해 애써오신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효성그룹은 2018년 잠실창작스튜디오 시절부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인연을  
이어오며, 입주 작가분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장애’라는 단어를 넘어 소통하고,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공감대로 엮여지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체와 감정, 시간과 상처가 남긴 ‘감각의 서사’를 섬유, 회화,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며, 관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걸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효성그룹은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작가와 관객,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되는 따뜻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정원



# 전시소개

 전시 서문

 전시 전경

##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기억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몸에 남습니다.  
오래전 기억도 냄새나 촉감처럼 찰나의 감각에 의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이렇게 몸에 새겨진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애예술기획전 《The SensoryTale 감각의 서사》는  
여섯 명의 작가들이 신체와 감정, 시간과 상처를  
각자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 체험의 기록이자  
이야기입니다. 섬유, 회화,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는 삶을 번역하는 도구가 됩니다. 작품은  
관객에게 여러 층위의 경험을 제안하고, 중첩된  
지각을 통해 존재를 다시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는 총 3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감각의 세계>에서는 김은정 작가와 허겸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은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며, 서로 다른 감각이 스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김은정 작가는 섬유와 털실을 겹치고 반복해 쌓아 만든 형상을  
선보입니다. 손의 움직임으로 시간과 기억의 흔적을 차곡차곡 남기며, 보이지 않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면서 관객에게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허겸 작가는  
도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탐구합니다. 원경과 근경, 흐릿함과  
선명함이라는 두 표현 방식에서 작가가 도시에 품은 감정의 결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새겨진 감각의 기록>입니다. 위혜승 작가와 곽요한 작가의 작업은  
몸에 남은 상처와 과거의 시간을 마주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두 작가는 개인적  
경험을 관람객과 나누며,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위혜승 작가는 피부에  
새겨진 흉터와 발진 같은 흔적을 화면으로 옮깁니다. 돌가루와 아교를 반복해 쌓고  
갈아내는 과정은 손상과 재생의 시간을 환기하며, 남은 흔적을 통해 과거의 시간을  
되짚어나가고 자신과 외부 세계의 접촉됨을 확인합니다. 곽요한 작가는 신체적  
제약과 사회적 고립의 경험을 화면에 드러냅니다. 삶의 균열과 긴장은 화면 속  
구조물과 공간으로 표현되며, 존재의 경계에 선 자아가 고립된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붕괴와 단절의 감각을 환기하면서도, 작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독과 불안을 사유하게 합니다.

마지막 챕터는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입니다. 윤하균 작가와 김승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은 현실을 넘어선 세계와 상상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작가의 작업은 재구성된 풍경과 가상의 존재를 통해 내면의 감각을 넓히고, 관객은 익숙한 차원을 벗어나 낯선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윤하균 작가는 괴물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내면의 두려움과 감정을 응축해 표현합니다. 작가가 그려내는 괴물은 일상에도 존재할 것 같은 친근함과 으스스함을 함께 지닙니다. 작품 속 괴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령이나 수호적 존재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며,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고 해방시키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김승현 작가는 바닷속 풍경과 일상의 세계를 결합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그립니다. 화면 속 문과 경계는 서로 다른 차원을 연결하는 상징적 구조로 작동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이상향을 시각화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시각적 결과물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이 탄생하기까지의 내면적 여정을 직접 들려주었고, 그들의 고백과 기억은 전시장 곳곳에 짧은 문장, 오디오가이드, 설치적 장치로 살아 숨 쉽니다. 관객은 단순한 ‘보는 행위’를 넘어, 작가의 몸과 마음에 스며든 감각의 흔적에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작가와 작품을 해석하는 비평가의 시선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전시장 안의 언어는 감각을 분석하고 해체하며,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작품을 읽어냅니다. 이 해석은 공간 안에 하나의 텍스트로 배치되어, 관객에게 사유할 거리를 제공하고 참여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로 쓰인 작품 안에서 저마다의 감정을 만나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게 됩니다. 이 전시는 작가의 몸에 새겨진 기억에서 출발해 작품으로 이어지고, 작품의 서사를 거쳐, 관객의 공감으로 확장되는 세 줄기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이 흐름은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지 않고, 충돌과 중첩 속에서 새로운 감각의 서사로 끝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 장윤주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전 큐레이터

##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사람의 기억은 말보다 먼저 몸에 남습니다. 오래된 기억도 냄새나 손의 감촉처럼 감각을 통해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시는 작가 6명이 몸과 감정, 시간과 상처의 경험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천,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여러 감각을 느끼며, 자신의 기억과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전시는 3개의 주제로 나뉩니다.

### 1. 새로운 감각의 세계(참여 작가: 김은정, 허겸)

이 전시에서는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은정 작가는 부드러운 천과 털실을 겹쳐 만든 작품을 선보입니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에는 시간과 기억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소리나 감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허겸 작가는 도시 풍경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 줍니다. 흐릿하거나 선명하게 그려진 도시의 모습을 통해 도시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음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관람객은 익숙한 도시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 2. 새겨진 감각의 기록(참여 작가: 위혜승, 곽요한)

이 전시에서는 몸에 남은 상처와 기억,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혜승 작가는 피부에 남은 흉터나 상처의 흔적을 작품으로 옮깁니다. 돌가루와 아교\*를 여러 번 칠하고 갈아내는 과정을 통해, 상처가 생겼다가 다시 아물어가는 시간을 표현합니다. 작가가 겪은 고통이 나아지고 회복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곽요한 작가는 자신이 겪은 몸의 한계\*와 외로움을 작품으로 나타냅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은 삶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딘고 있던 땅이 무너지는 감각”을 이야기하면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 3.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감각(참여 작가: 윤하균, 김승현)

이 전시에서는 현실을 넘어 상상의 세계로 이어지는 감각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윤하균 작가는 괴물의 형상을 통해, 괴물이 단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님을 드러냅니다. 작가는 억눌렸던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승현 작가는 바닷속 풍경과 실제 세상을 연결해 현실에 없는 상상 속의 완벽한 세계를 그립니다. 작품 속에 그려진 문과 문틈 사이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마음속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었고, 그 고백과 기억은 짧은 글과 소리, 전시장 안의 장치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관람객은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 작가의 몸과 마음에 남은 감각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게 됩니다.

또 이번 전시에는 작품을 바라보는 비평가\*의 글과 생각도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긴 감정과 생각 사이에서 새로운 시선을 제안합니다. 이 글들은 전시장 안에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서, 관람객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게 표현된 작품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작가의 몸에 남은 기억에서 작품의 이야기로, 이어서 관람객의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하나의 답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부딪히고 겹치며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설치작품: 그림처럼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나 천장, 벽, 조명, 소리, 영상 같은 여러 재료를 공간에 놓거나 꾸며서 만든 작품

\*아교: 재료를 붙일 때 사용하는 풀

\*한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비평가: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를 나누는 사람

## The Sensory Tale

The body remembers before words can. Even distant memories are revived through fleeting sensations such as smell or touch. In this way, memories imprinted on our bodies and minds endure, despite the passage of time. The Sensory Tale, a special exhibition of works by artists with disabilities, recalls the experiences and stories of six artists who unravel memories of the body, emotions, time, and wounds through their unique artistic languages. From textiles and painting to installation and found objects, the diverse artistic media serve as tools for translating life stories into art. Their works offer multilayered experiences to visitors, and these layered perceptions guide us to reflect on existence once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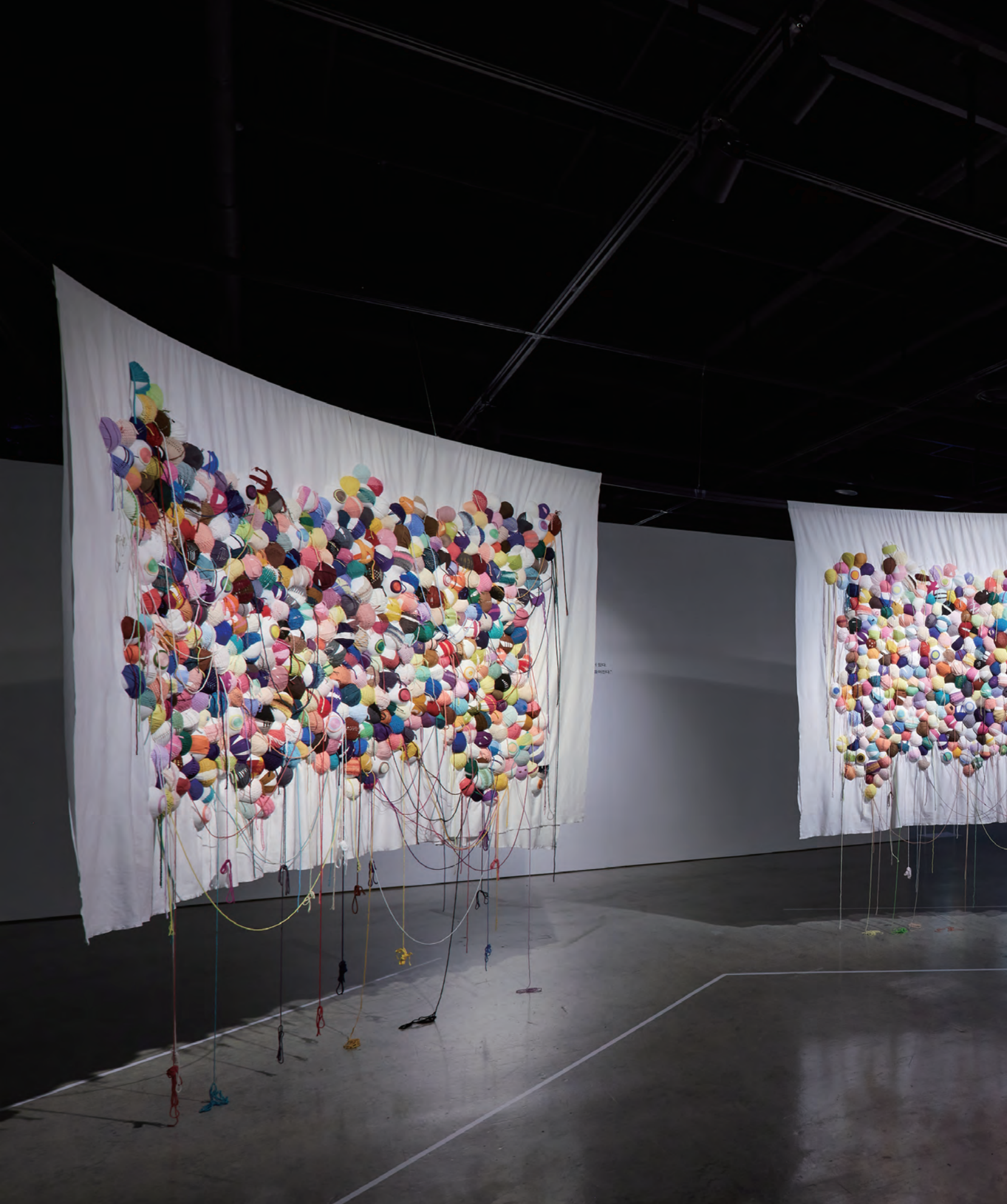
The Sensory Tale unfolds in three chapters.

The first chapter, “A New Sensory World,” presents unfamiliar, alternative views of everyday scenes through the works of Kim Eunjung and Hur Kyeom, allowing us to encounter moments when different senses intersect. The second chapter, “Memories of Sensory Imprints,” features the works of Wi Hyeseung and Kwak Yohan, which reveal the process of confronting bodily scars and past experiences. Wi and Kwak share deeply personal narratives, exploring possibilities for recovering their inner selves. The final chapter, “Senses Beyond Time and Space,” introduces the works of Yoon Hagyoon and Kim Seunghyun, which invite visitors to enter worlds beyond reality and to meet imaginary beings. Their works expand our sense of the inner world through restructured scenery and fantastical forms, encouraging us to step outside the familiar and gain new sensory experiences.

This exhibition is not a simple gathering of visual outcomes of artistic practice. Rather, the artists share the inner journeys that led to their work, with stories and recollections coming to life through short texts throughout the gallery, audio guides, and other installation elements. Visitors engage in more than just “the act of viewing,” relating to the sensory traces left on the minds and bodies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Another distinctive feature is the presence of critics’ perspectives. Texts in the galleries interpret and deconstruct the senses, situating the works within the interplay of emotion and reason. These reflections are placed around the exhibition, offering prompts for contemplation and opening doors to participation.

As we encounter works created in diverse artistic languages, we engage with the emotions they embody and recall memories from the past. This exhibition unfolds in three movements: beginning with memories imprinted on the body that lead to artistic creation, continuing into artistic narrative, and finally extending into the empathetic experience of visitors. This flow does not end with a single, fixed conclusion, but continues endlessly as a new sensory tale, shaped by collisions and overlaps.

- Jang Yunjoo, Curator of The Sensory Tale







021  
전시 전경





이 작품은 빛의 반사와 굴절을 통해 공간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관람객의 시각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빛의 강도와 색상을 조절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출품작

 김은정

 허겸

 곽요한

 위혜승

 윤하균

 김승현

## Chapter 1. 새로운 감각의 세계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감각의 세계>에서는 김은정 작가와 허겸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은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며, 서로 다른 감각이 스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The first chapter “A New Sensory World,” presents unfamiliar, alternative views of everyday scenes through the works of Kim Eunjung and Hur Kyeom, allowing us to encounter moments when different senses intersect.



“작가는 자기 몸이 가진 ‘고유한 운동과 감수성’을 통해 예술을 만들어낸다. 구체적, 직접적으로 몸을 재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김은정의 작품에는 육체성이 고조되어 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몸을 통해, 즉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역학의 작동을 통해 실재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 이문정, 「축적되는 몸짓, 흩어지는 울림」 (2025) 중에서

김은정

김은정 작가는 섬유와 직물을 주요 매체로 작업하는 설치 미술가입니다. 거즈, 솜, 털실과 같은 재료의 질감과 반복적 행위를 통해 몸과 기억, 감각의 층위를 탐구합니다. 섬유가 지닌 부드러움과 유동성, 그리고 시간을 집요하게 쌓아가는 특성을 매개로, 돌보고 어루만지는 행위에 내재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작가는 손의 움직임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며, 시각을 넘어 촉각이 지닌 근원적 인식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의 작업은 감각과 육체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확장됩니다.

Kim  
Eunjung

Kim Eunjung is an installation artist who works primarily with textiles and fabric. She explores layers of the body, memory, and the senses through repetitive actions and the textures of materials such as gauze, cotton, and wool yarn. The softness, fluidity, and persistent accumulation of time inherent in textiles are used to reveal the implicit meanings of caring and comfort. Ki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and movements and sensory experience, drawing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potential of tactile perception beyond the visual. Based on the reciprocity between the senses and the body, Kim's work extends into the process of realizing artistic imagination.

김은정

김은정 작가는 천과 솜, 털실 같은 섬유 재료로 작품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재료를 손으로 반복해서 만지고 감싸는 일을 반복하면서, 몸과 기억, 감정의 순서와 위치에 대해 생각합니다.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다는 천의 특징은 돌봄과 위로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작가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은 감각과 몸이 서로 이어져있다는 사실을 예술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자기 몸이 가진 '고유한 운동과 감수성'을 통해 예술을 만들어낸  
드로잉을 재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김은정의 작품에는 육체성  
은 몸을 통해, 즉 장난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인 역학의 작용을 통해 살해하는 제  
이윤성 '축적되는 몸짓, 끌어지는 움직임' (2025) 중에서

이 고조되어 있다.  
몸으로 만들어진다.



## Maluma(말루마) (2025)

<소로아>와 <말루마>는 두 개의 거대한 ‘숨 쉬는 벽’으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작품은 부드럽고 살아있는 장벽처럼 공간을 호흡합니다. <말루마>는 천을 부풀려 만든 울룩불룩한 형상들이 세포처럼 증식하며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볼록한 버블-셀(bubble-cell)은 색색의 털실로 감싸지고 겹쳐지며, 손으로 감싸는 행위를 통해 돌보고 아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포근한 촉각성을 가진 작은 세계이자, 동시에 실을 통해 서로 연결되며 무한히 확장되는 숨 쉬는 벽이 됩니다. 작품은 손길의 기억과 시간이 썩어가는 과정을 담으며, 촉각적 세계가 서로 겹치고 이어지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작  
품  
의  
문  
맥

### Maluma(말루마) (2025)

이 작품은 <소로아>와 함께 두 개의 커다란 ‘숨 쉬는 벽’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천을 부풀려 만든 울룩불룩하게 둥근 모양은 마치 살아 있는 세포처럼 보입니다. 둥근 부분은 다른 색깔의 털실로 감싸지고 서로 겹쳐지면서 손으로 감싸고 서로 이어주듯 누군가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하나가 각자 작은 세계 같지만, 실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벽이 됩니다. 이 작품은 손길이 닿은 시간이 쌓이는 과정을 통해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가 서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Maluma(말루마), 2025, 천, 털실, 190×240×10cm



043

김은정 Kim Eunjung



## Soloya(소로야) (2025)

<소로야>는 밝은 색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털실의 울림이 마치 공간 위에 퍼져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관객은 두 장벽 앞에서 촉각적 세계가 서로 부딪히고 연결되며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 <말루마>와 <소로야>는 세포 형상의 동글동글한 소리를 담은 발음으로, 시각과 촉각을 넘어 소리와 언어 차원에서도 부드러운 리듬과 확산을 반영합니다.

산  
더  
위  
소

## Soloya(소로야) (2025)

<소로야>는 작품의 밝은 색이 눈에 띄니다. 둥근 털실의 모양이 소리가 공간 속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관객은 벽의 두 작품 앞에서 만져지는 세계가 서로 부딪히고 연결되며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 '말루마'와 '소로야'는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를 표현한 말로, 눈과 손의 감각뿐 아니라 소리와 언어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Soloya(소로야), 2025, 천, 털실, 190×240×10cm



Cuckoo(쿠쿠), 2022, 천, 털실, 95×200×7cm



Oluwa(올루와) #01, 2025, 종이에 수채, 48.3×60.3×4.2cm



Oluwa(올루와) #02, 2025, 종이에 수채, 48.3×60.3×4.2cm



Oluwa(올루와) #03, 2025, 종이에 수채, 48.3×60.3×4.2cm



Oluwa(올루와) #04, 2025, 종이에 수채, 48.3×60.3×4.2cm



“도시는 어딘가 기이하게 밝고, 동시에 어두웠다. 그는 색을 흐릿하게 만들고, 선을 지웠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어떤 회색의 감정. 그것은 도시가 그에게 보내는 무표정한 얼굴 같았다. 침묵의 얼굴. 거기에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이름을 붙이는 건 쉽지만, 그는 그저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 전소정, 「낮은 곳의 풍경들」 (2025) 중에서

허겸            허겸 작가는 도시 풍경 속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감정과 인상을 탐구합니다. 멀리서 바라본 원경 시리즈에서는 건물들의 차이가 흐려지며 하나로 어우러진 도시를 통해 낯섦과 회피, 동경의 감각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근경 시리즈에서는 전선과 기둥, 닫힌 창문 같은 구체적 요소들을 강조해 직접적인 외로움과 불안을 표현합니다. 흐릿함과 선명함이라는 두 시각적 장치를 통해, 작가는 도시가 품은 고립과 동시에 조화의 가능성을 회화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Hur  
Kyeom            Hur Kyeom explores the personal emotions and impressions we encounter in urban landscapes. In his distant view series, the differences between buildings become less apparent and the city emerges as a harmonious mass that conveys feelings such as unfamiliarity, avoidance, longing. Meanwhile, in the close-range view series, Hur directly expresses a sense of loneliness and anxiety by highlighting specific elements such as electric wires, poles, and closed windows. Through the visual devices of blurriness and clarity, Hur examines the potential for both isolation and harmony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painting.

허겸

허겸 작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립니다. 그는 멀리서 본 도시와 가까이서 본 도시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멀리서 본 도시를 그린 작품들은 건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낮설지만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가까이 본 도시를 표현한 작품들은 전선과 기둥, 닫힌 창문 같은 모습이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흐릿함과 선명함을 이용해서 도시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055  
Hur Kyeom



056  
Hur Kyeom



## 서울 No.9 - Before Sunset (2024)

작가는 도시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멀리서 본 도시는 서로 다른 건물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 있지 않고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과 동시에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저녁 무렵 산책하며 마주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해 질 녘 햇살을 받은 건물들이 다채로운 색을 띠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유화로 표현되었습니다.

산  
후  
의  
산

### 서울 No.9 - Before Sunset (2024)

이 작품은 작가가 저녁 산책 중에 멀리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작가에게 서로 다른 건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그 속에 있지 않고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면서도 외로웠다고 합니다. 해 질 무렵 햇빛을 받은 건물들은 다양한 색으로 빛나며,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No.9 - Before Sunset, 2024, 캔버스에 유채, 80.3×116.8cm



오디오 도슨트

허겸  
선과 선 XII

2025  
종이재 혼합 매체, 아크릴  
40.5 x 31.8cm

작가는 도시 속에서 사생활을 가늠하지는 못하는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개인에게 놓여진 건물과 기둥, 간격, 열린  
공간을 그 안에서 누군가 살고 있음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사생활'의 지능적 적당성에 관한  
인물과 건축물을 통한 탐구에 집중합니다. 허의 도시를  
보통의 사례들을 위한 탐이므로, 무관심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문화를 표현합니다.



허겸  
선과 선 XIII

2025  
종이재 혼합 매체  
40.5 x 31.8cm



작품  
선과 선 Z

2025  
종이에 연필로 150x150  
48.5 x 37.5cm



작품  
선과 선 V

2025  
종이에 연필로  
48.5 x 37.5cm

## 선과 선 XII (2024)

작가는 도시 속에서 시선을 가로막는 수많은 선들을 발견했습니다. 뾰뾰하게  
늘어선 건물과 기둥, 검게 닫힌 창문들. 그 안에는 누군가 살고 있겠지만,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작가는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건물들을 골라 화면에 담았습니다. 색의 채도를 낮추고 디테일을 지운 방식으로,  
무관심하게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선  
의  
선

## 선과 선 XII (2024)

작가는 도시 속에서 뾰뾰하게 서 있는 건물과 기둥, 닫힌 창문처럼 눈앞을  
가리는 수많은 선들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지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선들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하고 색을 진하게 써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도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선과 선 XI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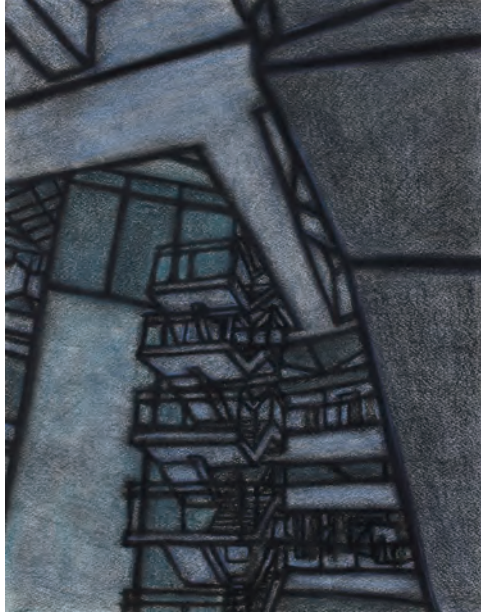
선과 선 I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II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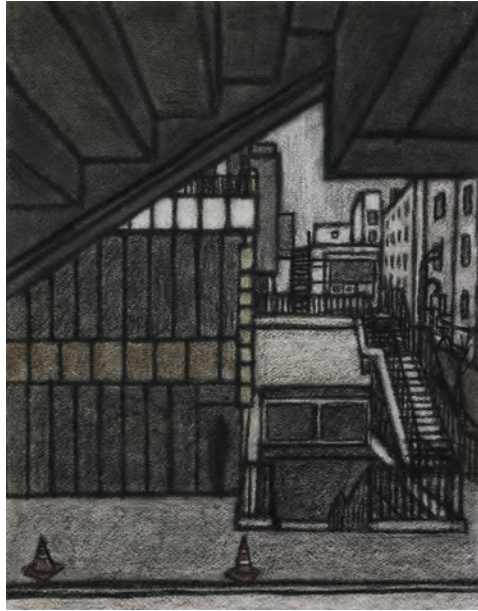
선과 선 V,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V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VI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VII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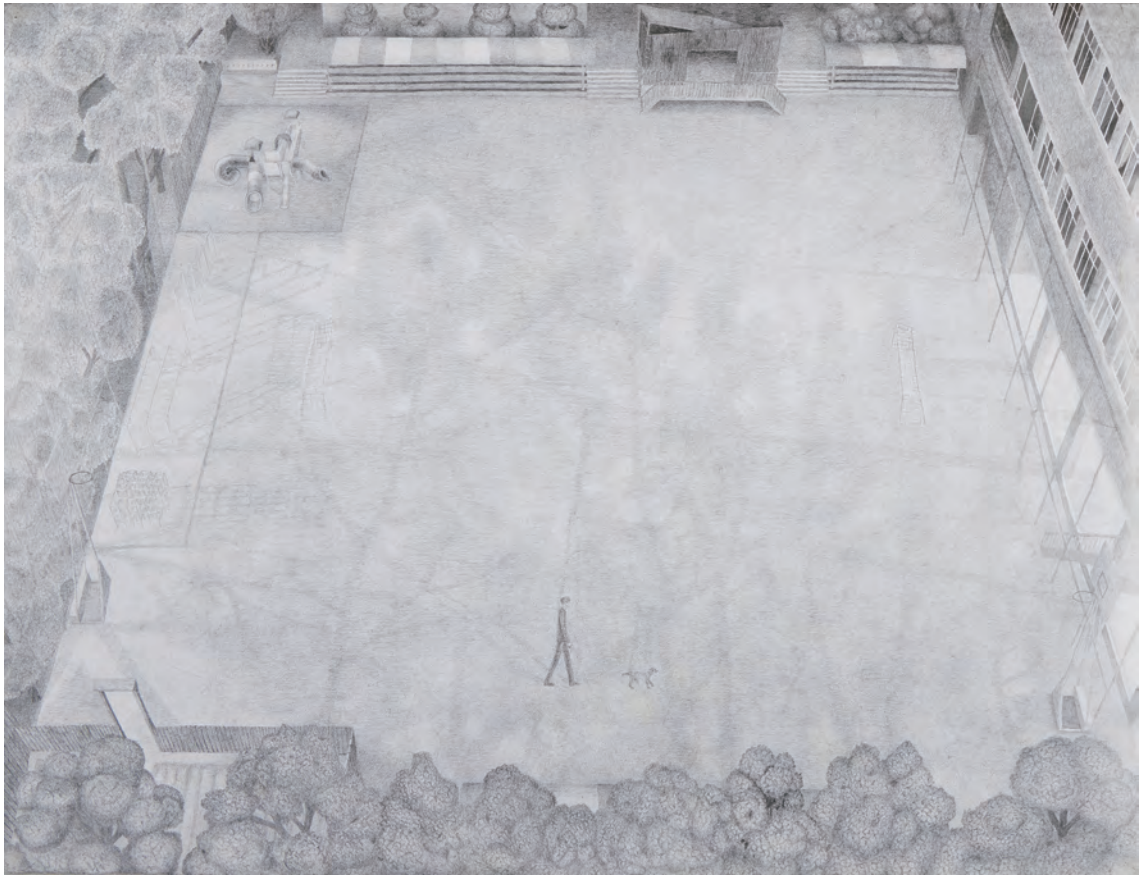
선과 선 IX,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지,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선과 선 XIII, 2025, 종이에 콩테, 파스텔, 40.9×31.8cm



밤산책, 2020, 종이에 연필, 96×126.6cm



서울 No.10, 2024, 캔버스에 유채, 72.7×90.9cm



서울 No.6 - Urban forest,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72.7cm

## Chapter 2. 새겨진 감각의 기록

두 번째 챕터 <새겨진 감각의 기록>입니다. 위혜승 작가와 곽요한 작가의 작업은 몸에 남은 상처와 과거의 시간을 마주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두 작가는 개인적 경험을 관람객과 나누며,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The second chapter, “Memories of Sensory Imprints,” features the works of Wi Hyeseung and Kwak Yohan, which reveal the process of confronting bodily scars and past experiences. Wi and Kwak share deeply personal narratives, exploring possibilities for recovering their inner selves.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와 접속의 지점이다. 우리로부터 가장 바깥인 것, 우리가 끝나는 지점에 피부가 있다. 그러니 피부는 나이자 내가 속한 풍경의 일부다.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와 떼어놓는 막이자,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와 겹쳐지는 접속의 지점이다. 피부라 불리는 나의 경계에는 나와 세계가 뒤섞인 흔적들이 겹겹이 겹쳐져 있다.

- 최영건, 「시간의 풍경이 된 피부들」 (2025) 중에서

위혜승

위혜승 작가는 피부와 흉터를 매개로 자아와 시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수술과 치료로 남겨진 신체의 흔적을 출발점으로 삼아, 피부를 ‘기록의 매체’이자 ‘경계와 통로’로 인식합니다. 작가는 피부에 새겨진 발진과 상처, 척추 수술 자국 등을 관찰하며 개인의 기억과 망실된 시간을 마주합니다.

Wi  
Hyeseung

Wi Hyeseung turns to skin and scar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ime. Using the scars on her body from multiple surgeries and treatments since childhood as a starting point, Wi goes on to perceive the skin as “a medium of records” and “a boundary and channel.” As she examines the scars from rashes, wounds, and back surgery, Wi confronts personal memory and lost time.

위혜승

위혜승 작가는 피부와 흉터를 통해 자신과 시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어릴 때 여러 번 수술을 받아 몸에 남은 상처가 많습니다. 작가에게 피부는 시간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몸의 안과 밖을 나누거나 잇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피부에 난 발진\*과 상처, 수술 자국 등을 살펴보며 기억과 사라진 시간을 마주합니다.

\*발진: 피부에 붉은 점처럼 돌아난 것



077  
위혜승  
2019  
오일, 캔버스  
100x100cm





## 껍질 (2025)

<껍질>은 자신의 피부에 대한 낯설고 감각의 혼란에서 출발합니다. 중학교 시절 등에 남은 긴 흉터를 마주했을 때, 그 흉터의 피부는 감각이 무뎠다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덧댄 듯한 이질감, 나의 피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분명함, 언제 감각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 작품은 바로 이 모호한 경험을 화면 위로 옮겨, 자아의 경계와 그 불안정한 감각을 드러냅니다.

작  
가  
의  
소  
속

### 껍질 (2025)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피부가 낯설게 느껴졌던 경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학생 때 수술한 다음 작가는 등에 생긴 긴 흉터에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붙인 것 같은 낯선 느낌, 내 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언제 감각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경험이 담긴 이 작품은 진짜 '나'에 대한 생각과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검질, 2024, 한지에 혼합재료, 91×60.8cm



“모든 것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공격의 잠재적 지점이다.  
공포로부터 가장 바깥으로, 속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다른 세계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가 다른 세계와 접촉하는 일의 지점이다.  
세계가 보이는 나의 존재는 나의 세계가 바뀐 존재가 아니라 같아 있다.”  
- 윌리엄 서먼의 문장들, 2010년 작품



## 균열 (2025)

<균열>은 몸에 새겨진 흉터를 기억의 흔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흉터가 남긴 갈라짐은 상처를 넘어,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작가는 나무 패널 위에 한지, 아교, 돌가루를 반복해 쌓고 갈아내며 표면을 구축합니다. 그 위에 안료를 입히고 중앙을 깊게 갈라낸 뒤, 틈새에 다시 한지를 붙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화면에 남은 결과 갈라짐은 피부가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처럼, 지나온 시간이 남긴 흔적을 형상화합니다.

작  
가  
의  
말

### 균열\* (2025)

이 작품은 몸에 남은 흉터를 시간의 흔적으로 바라보며 만들어졌습니다. 흉터 때문에 생긴 갈라짐은 시간이 그동안 얼마큼,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작가는 나무판 위에 한지와 돌가루를 여러 번 덧붙이고 갈아내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색을 입히고, 가운데를 갈라 낸 다음 다시 한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갈라진 자국은 피부가 상처를 입고 다시 회복되듯이 시간이 지나며 남긴 흔적을 표현합니다.

\*균열: 갈라져서 틈이 생기는 것



균열, 2024, 한지에 혼합재료, 91×60.8cm



껍질2, 2024, 한지에 혼합재료, 90.8×71.7cm



균열2,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36×7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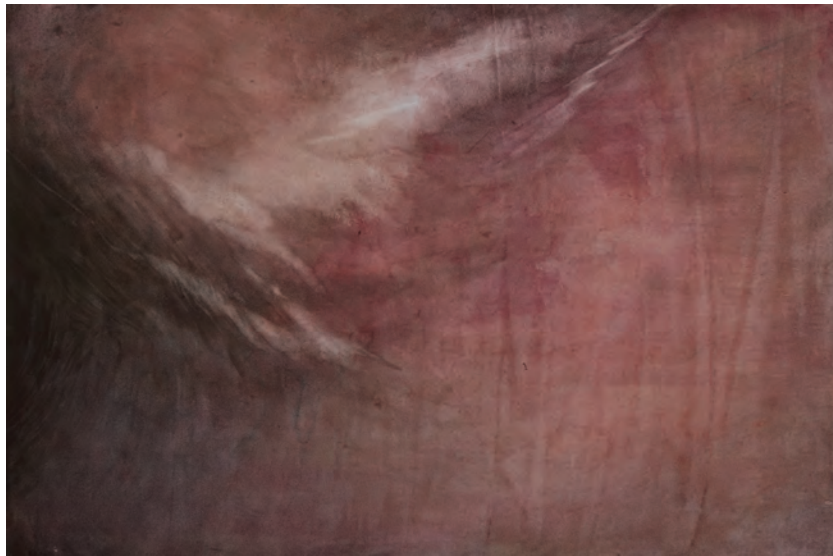
Epidermis1,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36.5×70.5cm



Epidemis2,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46×89.8cm



비치는 면1, 2024, 한지에 혼합재료, 38.3×40.3cm



비치는 면2, 2025, 한지에 혼합재료, 40.5×60.4cm



아래, 2025, 한지에 혼합재료, 73×61cm



흔적, 2025, 한지에 혼합재료, 28.0×35.4cm



접힌 자리, 2025, 한지에 혼합재료, 50.5×2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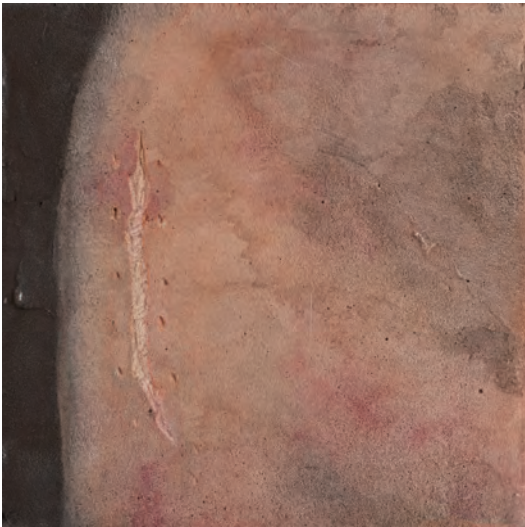
빼낸 자리, 2025, 한지에 혼합재료, 20.7×25.7cm



예상되지 않은,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6.5×16.5cm



예상된,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6.5×16.5cm



왼쪽,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6.5×16.5cm



오른쪽, 2025, 한지에 혼합재료, 16.5×16.5cm



“발작/뇌졸중(stroke) 이후 마침내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요한은 붓질(stroke)을 했다. 발작과 붓질이 영어로 같다면, 붓질이 일종의 발작 같은 것이라면, 장애인-되기로 인한 요한의 몸이 겪은 발작으로부터 화가-되기에 입문 중인 요한의 붓질의 첫 캔버스와의 만남이다.”

- 양효실, 「두 번째인 처음, 스트로크로부터」 (2025) 중에서

곽요한

곽요한 작가는 2021년 뇌경색을 겪은 뒤 급격히 달라진 삶의 조건과 신체적 경험을 회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과 낯설어진 자아의 감각을 화면에 옮기며, 붕괴와 재배열, 고립과 긴장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의자와 문, 빛과 그림자와 같은 오브제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현실 너머를 향한 염원을 시각화합니다. 그의 작업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삶의 조건과 존재의 경계를 묻는 회화적 실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wak  
Yohan

Kwak Yohan suffered an ischemic stroke in 2021.

This drastically changed the conditions of his life and physical experience, which he now shares through painting.

The hard reality that struck him overnight and the unfamiliar sensations of the self are expressed on the image plane, through which he explores themes such as collapse and reorganization, isolation and tension. Objects and elements such as chairs and doors or light and shadow are used to visualize those who struggle to find their place in society and the yearning beyond reality. While Kwak's works stem from personal experience, they continue to expand as painterly experiments that raise questions about the conditions of life and the boundaries of existence.

곽요한

곽요한 작가는 2021년에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몸과 삶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과 낯설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의 작품에는 무너짐, 홀로 떨어져있는 느낌, 긴장감 같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그린 의자, 문, 빛, 그림자 등은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현실을 넘어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뇌경색: 뇌로 가는 피가 통하지 않고 막혀서 생긴 병. 몸이 잘 안 움직여지거나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Chapter 2  
<새겨진 감각의 기록>  
Memories of Sensory Imprints

곽요한

곽요한 작가는 2021년 뇌경색을 겪은 뒤 급격히 달라진 삶의 조건과 신체적 경험을 회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이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과 낯설어진 자아의 감각을 화면에 옮기며, 붕괴와 재배열, 고립과 긴장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의자와 문, 빛과 그림자와 같은 오브제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현실 너머를 향한 염원을 시각화합니다. 그의 작업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삶의 조건과 존재의 경계를 묻는 회화적 실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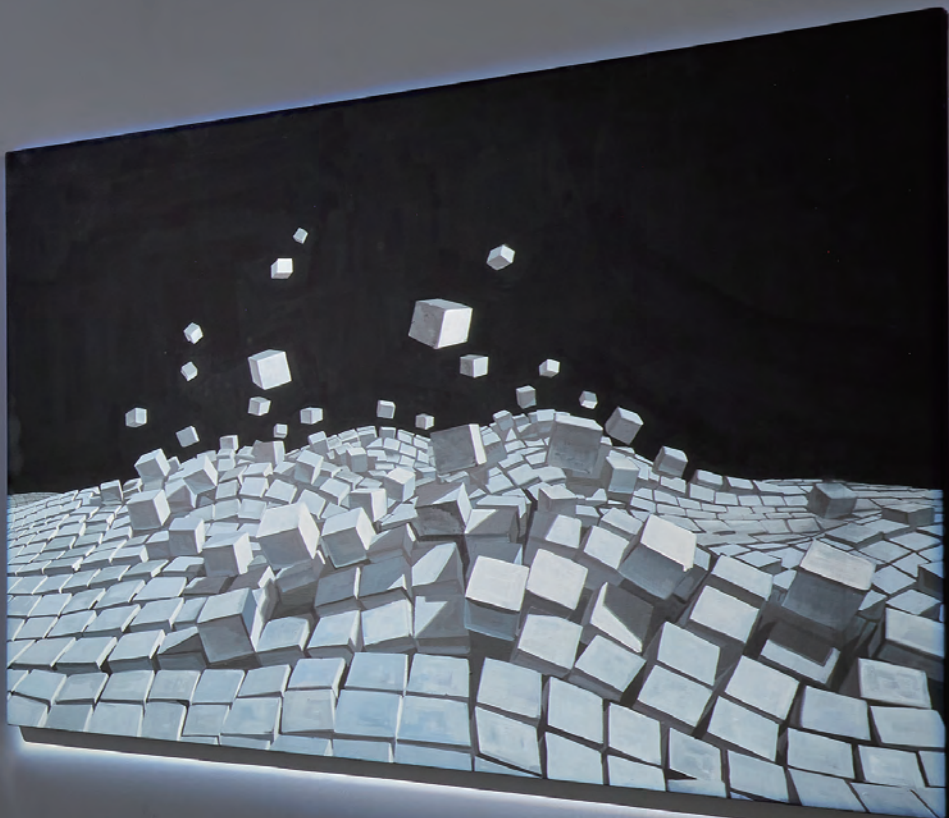
Kwak Yohan

Kwak Yohan suffered an ischemic stroke in 2021. This drastically changed the conditions of his life and physical experience, which he now shares through painting. The hard reality that struck him overnight and the unfamiliar sensations of the self are expressed on the image plane, through which he explores themes such as collapse and reorganization, isolation and tension. Objects and elements such as chairs and doors or light and shadow are used to visualize those who struggle to find their place in society and the yearning beyond reality. While Kwak's works stem from personal experience, they continue to expand as a painterly experiments that raises questions about the conditions of life and the boundaries of existenc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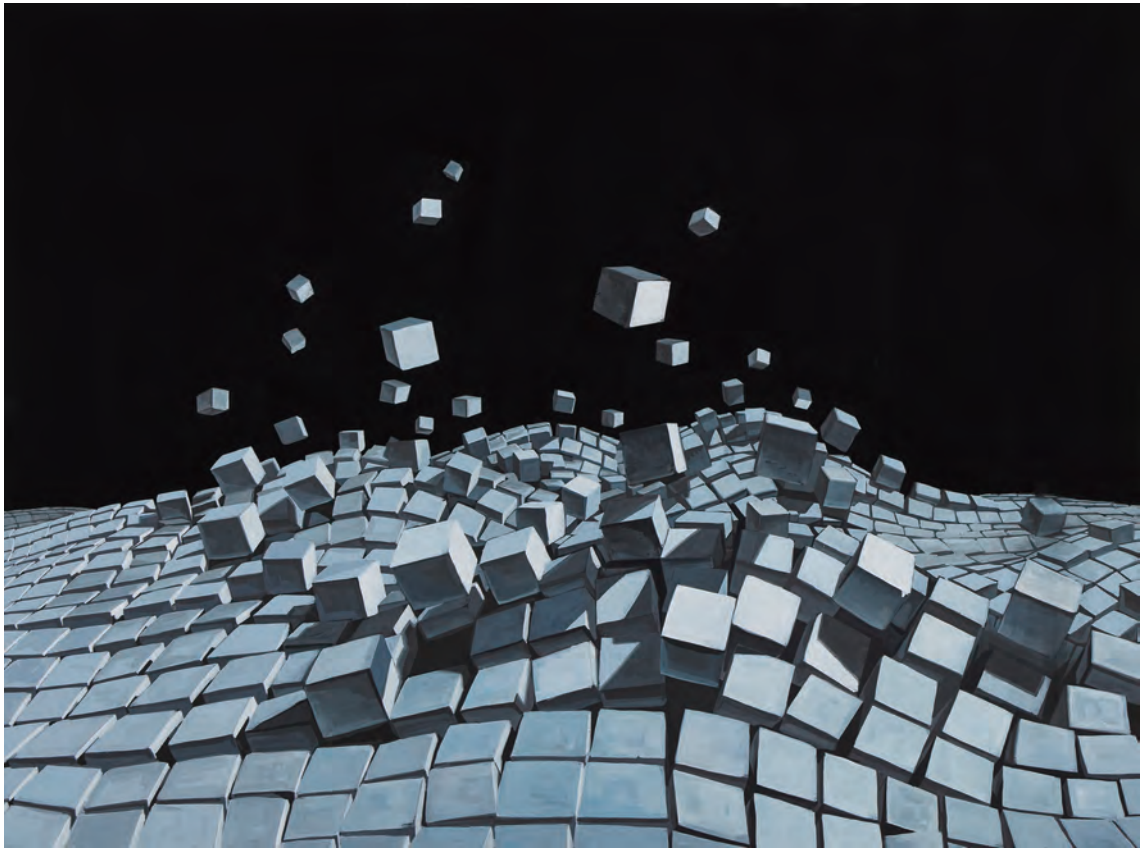
## Wave and Crush (2025)

곽요한 작가는 뇌경색이라는 사건 이후 신체적 제약과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 된 삶의 목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혼란을 주제로 합니다. 화면에는 붕괴와 재배열의 이미지가 담겨 있으며, 삶이 무너지고 다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급격히 변한 경험을 ‘딛고 있던 땅이 무너지는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  
가  
의  
소  
속

## Wave and Crush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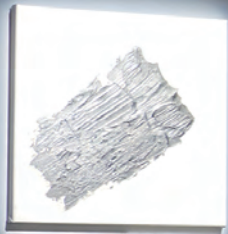
작가는 뇌경색을 겪고 난 후 자신의 몸을 예전처럼 쓸 수 없고 그동안 바랐던 목표도 이룰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변화로 크게 흔들린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딛고 있던 땅이 무너지는 느낌’과 같았던 경험을 그려,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새롭게 자리잡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Wave and Crush,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7×131cm



작품명  
Stroke  
매체  
오일, 캔버스, 100x100cm  
연도  
2025



작품명  
Stroke  
매체  
오일, 캔버스, 100x100cm  
연도  
2025



작품명  
Stroke  
매체  
오일, 캔버스, 100x100cm  
연도  
2025



작품명  
Stroke  
매체  
오일, 캔버스, 100x100cm  
연도  
2025

“발작/뇌졸중(stroke) 이후 마침내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요한은 붓질(stroke)을 했다.  
 발작과 붓질이 영어로 같다면, 붓질이 일종의 발작 같은 것이라면,  
 장애인-되기로 인한 요한의 몸이 겪은 발작으로부터 화가 되기에 입문 중인 요한의 붓질의 첫 캔버스와의 만남이다.”  
 - 양효실, 「두 번째인 처음 스트로크로부터」(2025) 중에서



QR CODE  
ARTWORK INFO

HEADPHONE  
AUDIO GUIDE

작품  
전시 정보

작품  
전시 정보

작품  
전시 정보

## 빛이 새어들어오는 문 (2019)

가상의 공간을 그린 작품으로, 알 수 없는 색의 빛이 새어드는 문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문의 존재는 공간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닫힌 공간의 낯선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색은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향하는 통로이자, 그런 곳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 작 가 의 말

#### 빛이 새어들어오는 문 (2019)

문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신비한 공간이 보입니다.  
닫힌 문은 공간에 긴장감을 주고 분위기를 낯설게 만듭니다.  
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빛과 색은 지금의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이 빛은 그런 세계가 정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 새어들어오는 문, 2019, 캔버스에 아크릴, 90×116cm



Blue hole, 2016, 장지에 아크릴, 100×100cm



낙상일기, 2025, 종이에 펜, 물감, 36×25.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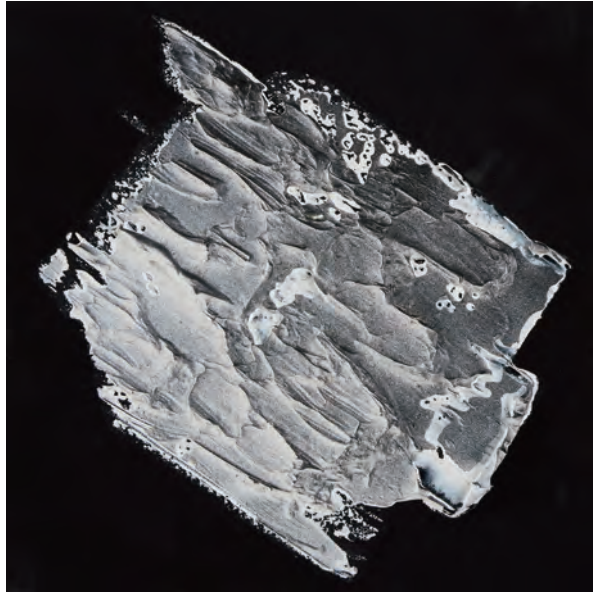
Stroke, 2025, 캔버스에 아크릴, 30×30cm



Stroke, 2025, 캔버스에 아크릴, 30×30cm



Stroke, 2025, 캔버스에 아크릴, 30×30cm



Stroke, 2025, 캔버스에 아크릴, 30×30cm

## Chapter 3.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

마지막 챕터는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입니다. 윤하균 작가와 김승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은 현실을 넘어선 세계와 상상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작가의 작업은 재구성된 풍경과 가상의 존재를 통해 내면의 감각을 넓히고, 관객은 익숙한 차원을 벗어나 낯선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The final chapter, "Senses Beyond Time and Space," introduces the works of Yoon Hagyoon and Kim Seunghyun, which invite visitors to enter worlds beyond reality and to meet imaginary beings. Their works expand our sense of the inner world through restructured scenery and fantastical forms, encouraging us to step outside the familiar and gain new sensory experiences.



“그는 내게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긴다’는 의미는 ‘불행을 막아낸다’는 것이고, 잘못된 질서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다”라는 윤하균의 말에서 얼마나 그의 의지가 굳건한지 가늠한다. 윤하균이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담담한 수묵은 수묵답지 않은 수묵으로 수묵답게 수묵을 이긴다.”

- 백필균, 「세 번의 언급」 (2025)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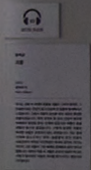
윤하균      윤하균 작가는 공포물과 괴수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결합된 경계적 존재를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괴물은 추하거나 혐오스럽지 않으며, 동시에 무섭지만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일상 속에서도 낯설게 마주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괴물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존재와 연결되는 상징적 매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oon  
Hagyoon      Yoon Hagyoon's work begins with her interest in horror and monster stories. She has continually explored the idea of hybrid beings that combine humans and animals. The monsters in Yoon's works are neither ugly nor repulsive—they may appear frightening, yet they are also beautiful, visualized in forms that we might encounter in our everyday lives, though unfamiliar. In doing so, Yoon does not confine monsters to mere subjects of fear but expands them as symbolic media that connect us to those that have been excluded or marginalized in society.

윤하균

윤하균 작가는 괴물과 공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사람과 동물이 섞인 새로운 존재를 그리며, 무섭지만 아름다운 괴물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괴물을 보기 싫고 무서운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거나 낯선 존재로 그립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괴물을 세상에서 외롭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봅니다.





Chapter. 3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  
Senses Beyond Time and Space

윤하균

윤하균 작가는 공포물과 괴수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결합된 경계적 존재를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괴물은 추하거나 혐오스럽지 않으며, 동시에 무섭지만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일상 속에서도 낯설게 마주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괴물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존재와 연결되는 상징적 매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oon Hagyoon

Yoon Hagyoon's work begins with his interest in horror and monster stories. He has continually explored the idea of hybrid beings that combine humans and animals. The monsters in Yoon's works are neither ugly nor repulsive—they may appear frightening, yet they are also beautiful, visualized in forms that we might encounter in our everyday lives, though unfamiliar. In doing so, Yoon does not confine monsters to mere subjects of fear but expands them as symbolic media that connect us to those that have been excluded or marginalized in society.

## 괴물 (2022)

작가는 신화 속 거대한 동물을 괴물로 그리려 했지만, 그 모습만으로는 무섭지 않고 단순히 큰 동물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요소를 섞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연히 본 공주 인형의 왜곡된 비례에서 영감을 받아, 인체와 닮았지만 뒤틀린 몸을 괴물의 몸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은 특정한 성별로 규정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중세 시대에 성소수자나 과부, 절름발이 같은 이들이 사회로부터 악마로 낙인찍혔던 역사와 겹치며, 작가는 자신이 그린 괴물이 그런 배제된 존재들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작품 속 괴물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밀어냈던 이들의 자리를 환기시키는 형상으로 다가옵니다.

### 작 가 의 소 속

#### 괴물 (2022)

작가는 처음에는 신화 속 큰 동물을 괴물로 그리려 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큰 동물처럼 느껴져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을 섞어 새로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연히 본 공주 인형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의 몸 같지만 뒤틀린 모습으로 괴물의 몸을 표현했습니다. 이 괴물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입니다. 작가는 오래전 시대에 성소수자\*, 남편을 잃은 여성,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사람들이 작품 속 괴물과 닮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괴물은 두렵게 느껴지기보다는 사회가 외면했던 사람들의 빈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소수자: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사람. 자신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등성애자, 자신과 같은 성별이나 다른 성별의 사람을 모두 좋아하는 양성애자, 어떤 성별도 좋아하지 않는 무성애자 등이 성소수자에 속한다.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성소수자가 있다.



괴물, 2022, 광목에 먹, 144×105cm



Chapter. 3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  
Senses Beyond Time and Space

윤하균

윤하균 작가는 공포물과 괴수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사람과 동물이 결합된 경계적 존재를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괴물은 추하거나 혐오스럽지 않으며, 동시에 무섭지만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일상 속에서도 낯설게 마주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괴물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존재와 연결되는 상징적 매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oon Hagyoon

Yoon Hagyoon's work begins with his interest in horror and monster stories. She has continually explored the idea of hybrid beings that combine humans and animals. The monsters in Yoon's works are neither ugly nor repulsive—they may appear frightening, yet they are also beautiful, visualized in forms that we might encounter in our everyday lives, though unfamiliar. In doing so, Yoon does not confine monsters to mere subjects of fear but expands them as symbolic media that connect us to those that have been excluded or marginalized in society.



이 작품은 윤하균 작가의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작품은 공포물과 괴수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과 동물이 결합된 경계적 존재를 탐구해왔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괴물은 추하거나 혐오스럽지 않으며, 동시에 무섭지만 아름다운 특성을 지니고, 일상 속에서도 낯설게 마주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윤하균 작가는 괴물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존재와 연결되는 상징적 매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freedom (2017)

<freedom>은 나무판 위에 옷칠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처음에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지만, 완성된 형상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이름을 붙이기도 힘든 존재로 남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담게 되었습니다.

작  
가  
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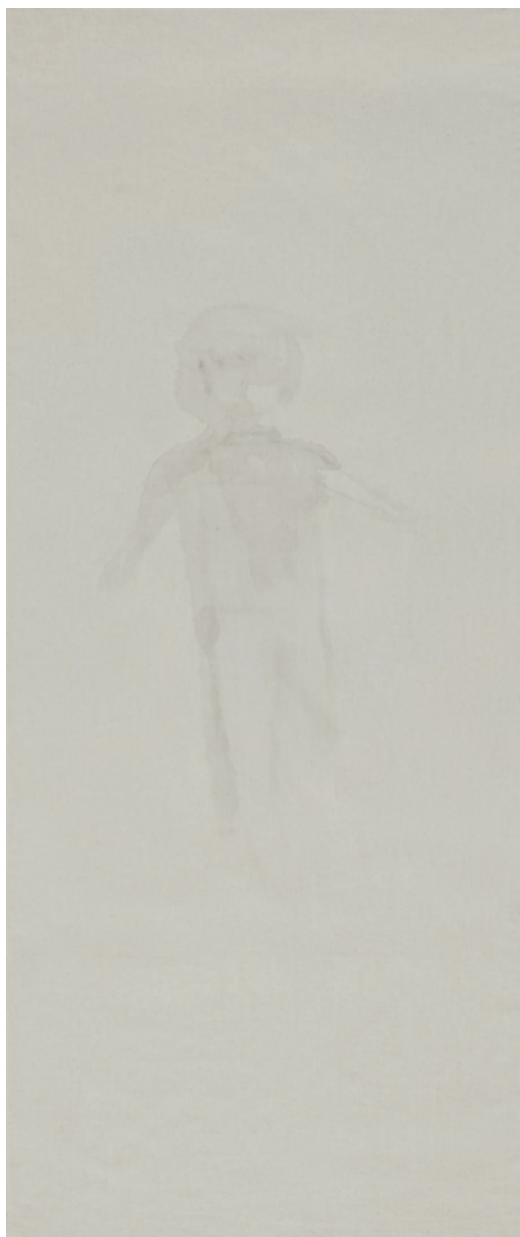
freedom (2017)

이 작품은 나무판 위에 옷칠\*로 만든 작은 그림입니다. 작가는 원래 날개 달린 사람을 그리고 싶었지만, 완성된 모습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형태가 되어, 누구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에 작가는 그림 속 사람이 누구든 자유롭게 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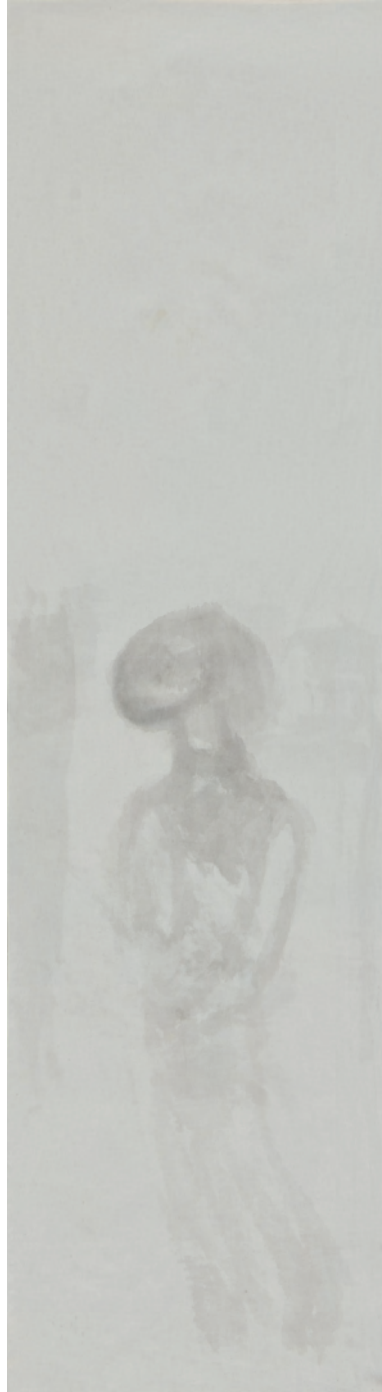
\*옷칠: '옷'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액체를 여러 번 바르는 것



freedom, 2017, 나무에 옷칠, 18×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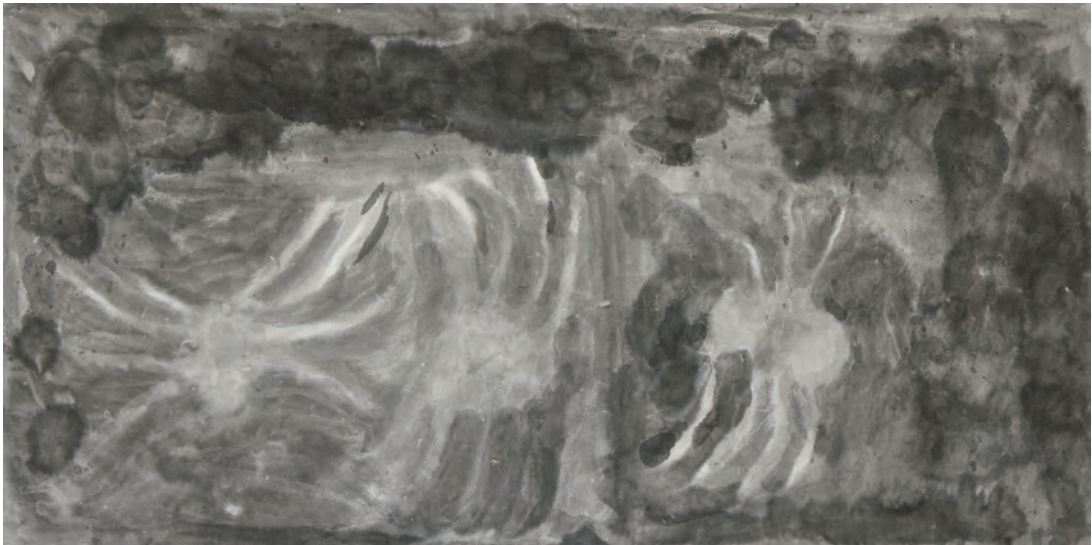
괴물, 2025, 광목에 먹, 200×55cm



괴물, 2022, 광목에 먹, 190×50cm



어두운 그 어디, 2015, 종이에 펜과 수채물감, 25.6×36cm



거미, 2021, 한지에 먹, 34.5×68cm



작은용사의 표본, 2015, 닭뼈와 형겅, 15×20×18cm



괴물(화첩), 2018, 한지에 먹, 34×25cm(6)



지옥문, 2025, 돼지뼈와 나무에 옷칠, 32×15×30cm



“김승현이 특별히 바다 생태계를 아껴 그려왔음은 사실이지만 바닷물 속에 잠기면  
고요히 귀를 닫게 되는, 그 세계만을 한정해서 그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는 몇 겹의 세계를 포개고 덧대며 그 과정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을  
간과하지 않는다.”

- 김현주, 「이미 잘하고 있는 작가에게 무슨 말을 더할까요?」 (2025) 중에서

김승현

김승현 작가는 일상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화를 통해 현실과 이상 세계가 공존하는 풍경을 탐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과 놀이 속에서 형상과 기호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디자인 전공 이후 회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어왔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소재를 중심에 두어, 알 수 없기에 두렵지만 동시에 동경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시각화합니다. 유년 시절 수족관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에서 얻은 상상력이 그의 창작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im  
Seunghyun

Kim Seunghyun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everyday life and imagination in his paintings, exploring scenes in which reality and utopia coexist. Since childhood, Kim has shown an interest in forms and symbols through drawing and play. After studying design, he turned to painting and has remained devoted to it ever since. He draw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ocean, visualizing it as a space that evokes fear because so much is unknown, but also longing and awe. Childhood experiences at aquariums and imagination nurtured through books and animations serve as important sources of inspiration in his creative practice.

김승현

김승현 작가는 현실과 상상 속 세계를 함께 그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거나 놀이에서 모양이나 형태, 기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배운 뒤로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특히 바다를 자주 그립니다. 바다는 알 수 없어서 두렵지만 간절히 꿈꾸게 되고 언제나 놀라움을 주는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어린 시절 수족관을 본 경험과 그림책, 애니메이션\*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들어진 영상



"김승현이 특별히 배타 생태계를 이해 그려낸것은 사실이지만 바닷물 속에 잠기면 고요히 귀를 닫게 되는  
 그 세계만을 한평생 그려온 건 아니다.  
 그는 몇 점의 세계를 포개고 영태려 그 과정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시브의 약속을 간과하지 않는다"  
 김원진, '이러 할하고 있는 작가에게 무슨 말을 더할까요?', (2025) 중에서



ARTIST TALK  
 김승현  
 김승현은 2010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사 조교수로 재직했다.

Chapter. 3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  
Senses Beyond Time and Space

김승현

김승현 작가는 일상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화를 통해 현실과 이상 세계가 공존하는 풍경을 탐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과 놀이 속에서 형상과 기호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디자인 전공 이후 회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어왔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소재를 중심에 두어, 알 수 없기에 두렵지만 동시에 동경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시각화합니다. 유년 시절 수족관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에서 얻은 상상력이 그의 창작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im Seunghyun

Kim Seunghyun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everyday life and imagination in his paintings, exploring scenes in which reality and utopia coexist. Since childhood, Kim has shown an interest in forms and symbols through drawing and play. After studying design, he turned to painting and has remained devoted to it ever since. He draw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ocean, visualizing it as a space that evokes fear because so much is unknown, but also longing and awe. Childhood experiences at aquariums and imagination nurtured through books and animations serve as important sources of inspiration in his creative practice.

## 놀이정원 (2025)

작가는 어린 시절 그림과 장난감 자동차 놀이, 숫자, 기호, 알파벳에 깊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 관심을 이어 원, 삼각형, 십자 등 기호를 활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를 형상화하고, 그 안에 어렸을 적 가지고 놀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상상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전 작업이 바다나 우주를 통해 이상향을 상상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상향을 직접 구축해가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더  
원  
산

### 놀이정원 (2025)

김승현 작가는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 숫자, 기호, 알파벳을 좋아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십자 모양을 이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타고 놀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상상이 그 세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 작품들이 바다나 우주를 통해 '이상적인 세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면, 이 작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꿈꾸는 완벽한 세상'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이정원,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1×116.8cm



작가: 김승현  
제목:   
소재:   
크기:   
매체:   
제작연도:   
설명:   
이 작품은 김승현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면에는 다양한 동물과 인물이 등장하며, 색채 또한 매우 선명하고 강렬하다. 특히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가 눈에 띄며, 전체적으로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준다.



작가: 김승현  
제목:   
소재:   
크기:   
매체:   
제작연도:   
설명:   
이 작품은 김승현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면에는 다양한 동물과 인물이 등장하며, 색채 또한 매우 선명하고 강렬하다. 특히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가 눈에 띄며, 전체적으로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준다.





무엇이 생애 Part 1  
민영연  
2023



신호등의 세라미컬  
민영연  
2023

## 우리의 세계 (2025)

<우리의 세계> 연작은 현실과 이상향이 이어지는 풍경을 그립니다.

<Part 1>에서는 해양 생물이 떠다니는 풍경과 그 속에 존재하는 열려있는 문을 통해 숲과 나비가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드러납니다. <Part 2>는 그 문을 지나 들어간 숲속 풍경으로, 공작새와 산호초, 고래가 어우러진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작품은 바다와 숲, 현실과 환상이 맞닿으며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산  
더  
완  
전

### 우리의 세계 (2025)

<우리의 세계>는 현실과 꿈속의 세상이 이어진 모습을 그린 연작\*입니다. 작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1(Part 1)에서는 바닷속 생물이 떠다니고 그 속에 열린 그 문 너머로 숲과 나비가 있습니다. 파트 2(Part 2)에서는 파트 1에 나왔던 문을 지나서 들어간 숲속 풍경입니다. 공작새와 산호초, 고래가 함께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두 작품은 바다와 숲, 현실과 환상이 이어진 상상 속의 완벽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연작: 한 작가가 같은 주제로 이어서 만든 여러 개의 작품들



우리의 세계 Part 1,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우리의 세계 Part 2,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우리의 세계 Part 3,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산호숲의 해파리들, 2025,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애들아, 저것 봐! (구름바다와 고양이들), 2024, 캔버스에 아크릴, 90.9×72.7cm






정원드로잉, 2025, 종이에 연필, 33×38.5cm



말미잘 정원, 2024, 캔버스에 아크릴, 91×116.8cm



부록

-  접근성 소개
-  비평 워크숍
-  작가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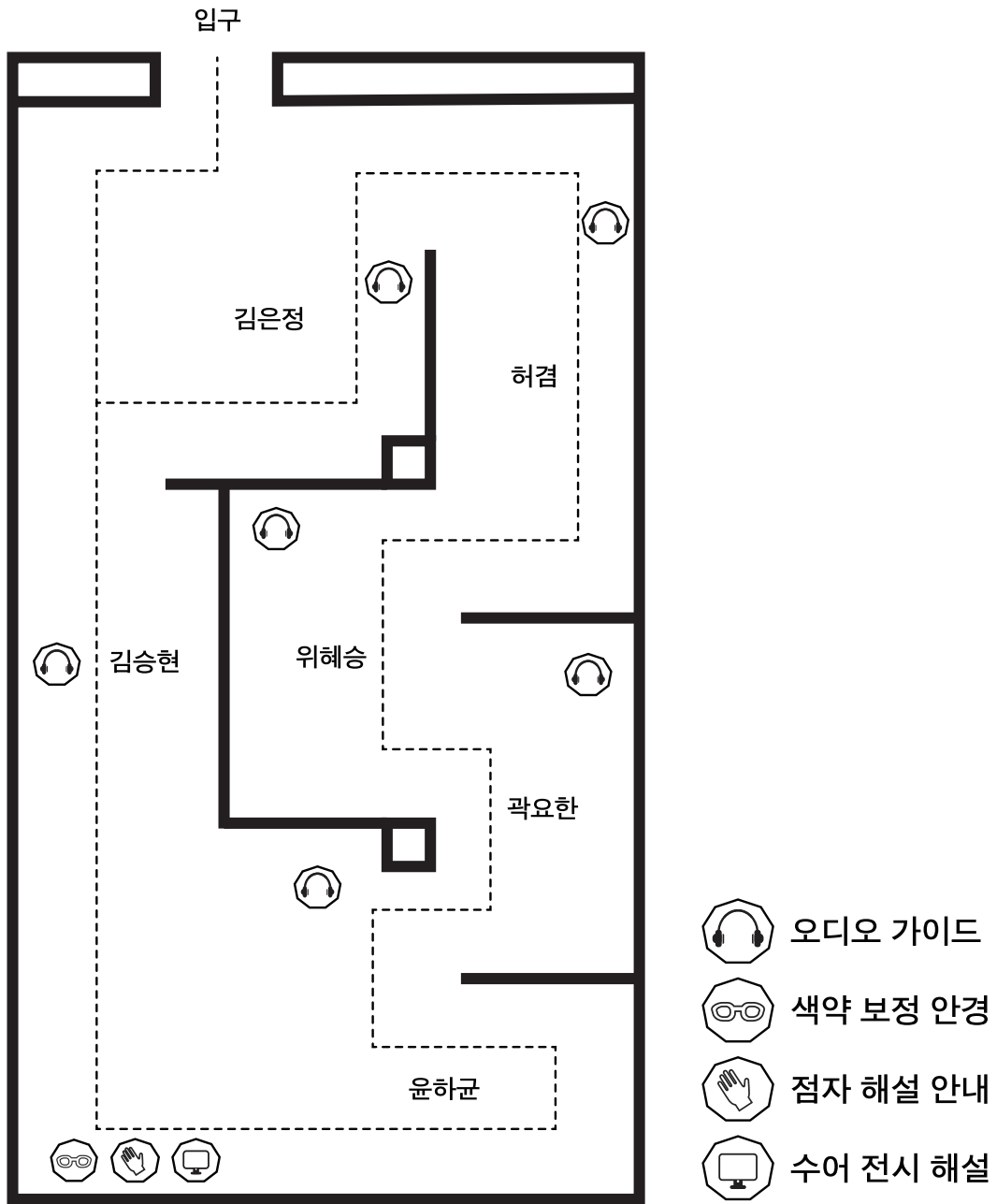
## 접근성 소개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본 전시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를 넘어,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전시입니다.

전시장의 공간 구성을 고려한 오디오 가이드, 수어 가이드, 쉬운해설, 점자, 큰 글씨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색맹이나 색약 등 색각 이상을 가진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색약 보정 안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람객이 작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말 정규 도슨트 해설을 운영합니다.



전시장 도면



점자 리플릿 Braille Leaflet



색약 보정 안경 Color Vision Glasses



점자 해설 Braille Exhibition Commentary



수어 해설 영상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Video



정규 도슨트 Regular Docent

## 비평 워크숍

김은정 작가

축적되는 몸짓, 흠어지는 울림 | 이문정(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

—아니야! 내가 외친다. / 난 굴복하지 않는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파기할 수 있다. 나는 ‘무(Néant)’라는 단어를 붙잡고, 반대로 뒤집는다. 태어나기(Né en).<sup>1)</sup>

보드랍고 포근하다. 따뜻하고 아늑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손끝이 아리는 감각이 스며든다. 익숙해진 통증. 반복 아닌 반복. 형상과 형상이 연결되고 이어진다. 감각과 감각이 만나고 헤어진다. 제자리에 고정된다. 마침표 없이 흐트러진다. 구멍-흔적이 생긴다. 이내 채워진다. 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물기 위해 생기는 상처. 근원은 무엇인지. 시작과 끝은 어디쯤인지. 목 안에서 시작해 온몸에 퍼지는 울림. 다가오는 흐릿한 멜랑콜리. 이내 번지는 심미적 생명력. 세상 일부의 수련거림을 벗어나는 고요한 안정. 김은정의 작업이 주는 인상, 감흥, 그리고 상념이다.

초기작인 <Alabaster Chamber>(2010), <Stairs to Green Canvas>(2011), <Urah>(2014)에서부터 <Oloyga>(2023), <Ethereal Breath>(2024)에 이르기까지, 작품 대부분에서 김은정은 천과 바느질을 이용해 왔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둥근 형태들 역시 조금씩 변용되어 등장하고 있다. 최근작이자 ‘Wall Sculpture’ 시리즈인 <Maluma>(2025)와 <Soloya>(2025)는 천으로 볼록하게 만든 구-세포를 털실로 감싼 뒤 바탕천에 고정한 작품으로 바탕도, 형상도 울이 풀어진 것처럼 열린 모습이어서 세포 분열이나 진화를 앞둔 것 같다. 오랜 기간의 바느질로 완성된 두 작품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주변의 공간을 머금은 한 쌍의 작품, 한 몸처럼 존재한다. 작가는 “촉각적으로 포근한 세포들이” “공간 속에서 따뜻한 외침이자 메아리처럼 느껴지길” 기대했다.<sup>2)</sup>

<Maluma>와 <Soloya>를 비롯한 김은정의 전 작품은 촉각을 극대화하는데, 감각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근원적인 통로이다. 특히 촉각은 감각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한 시각과 다르다.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부터 감각으로 세상을

느낀다. 그중 온몸에 존재하는 촉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 순간 경험된다. 어떤 감각보다 육체적이다. 작가는 천을 등글리고 폭신한 털실을 만지고. 바느질하며 작품에 촉각-감각을 축적한다. 시간과 시간, 손길과 손길 역시 켜켜이 쌓인다.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조각이 완성되었다.

작가는 자기 몸이 가진 “고유한 운동과 감수성”을 통해 예술을 만들어낸다. 구체적, 직접적으로 몸을 재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김은정의 작품에는 육체성이 고조되어 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몸을 통해, 즉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역학의 작동을 통해 실재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예술적 관념은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몸 없이 창작은 불가능하다. 머릿속의 상상은 행위-노동에 의해, 손의 놀림에 의해 태어난다. 정신과 몸은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정신-내면과 이어지는 것만큼이나 감각과도 관계하고 둘 다를 동요시킨다.<sup>3)</sup> 그래서인지,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정할 때도 몸의 작용을 중요시 했다. ‘Maluma(말루마)’와 ‘Soloya(소로야)’는 “입안에서 부드럽고 등글게 굴러 나오듯 울리는 음성을 직접 만들어본 것”이다. 그다음 태양, 사랑의 의미가 적셔졌다.<sup>4)</sup>

작가만의 단어이다. 입술-몸이 달히고, 열리고, 소리를 불러낸다. 생각이 스며든다. 여운이 남는다. 잔잔하게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울림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지만,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다. 통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는 작품을 새로운 맥락-관계에 놓이게 한다. 작가는 작품 앞에서 표현하기에 가까운 언어를 꿈꾼다. 그렇게 김은정은 표현하는 주체가 된다. 일상에서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소통의 과정에서 쏟아지는 규범적 단어들을 비껴난 단어는 사회적 체계와 규범이 한정하는 영역을 벗어난다. 이미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던 순간을 앞지른다. 확장된다.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작품의 시간이 시작된다.

---

마지막으로, 이 글을 시작할 때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글귀를 적어본다. 글이 어떻게 전개되든 적으려 했다. “당신에게 태양이 있기를 / 그리고 비도, 비가 필요하다면.”<sup>5)</sup>

- 
- 1) 엘렌 식수, 『아야이! 문학의 비명』, 이혜인(역), 워크룸 프레스, 2022, p. 25.
  - 2) 김은정, 작가 노트, 2025.
  - 3) 샬탈 자케, 『몸: 하나이고 여럿인 세계에 관하여』, 정지은, 김종갑(역), 그린비, 2022, pp. 342-343, pp. 351-352.
  - 4) 김은정, 작가 노트, 2025.
  - 5) 페르난두 페소아, 『오직 사랑만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준혁(역고 옮김), 도서출판 고유명사, 2024, p. 68.

## 비평 워크숍 - 쉬운해설

김은정 작가

축적되는 몸짓, 흩어지는 울림 | 이문정(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

김은정 작가의 작품을 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먼저 느껴진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손끝이 찢린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모양과 모양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딘가는 끊어지고 비어 보인다. 작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나 느낌 없이, 여러 가지 감각과 시간, 몸의 흔적을 쌓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김은정은 오랫동안 천과 바느질을 중심으로 작업해 왔다. 2010년의 <알라바스터 챔버(Alabaster Chamber)>, <스टे어즈 투 그린 캔버스(Stairs to Green Canvas)>, 그리고 2014년의 <우라(Urah)>부터 최근작 <오로이가(Oloyga)>(2023), <천상의 숨결(Ethereal Breath)>(2024)까지 모두 천과 실이 등장한다.

2025년에 새로 만든 <말루마(Maluma)>와 <소로야(Soloya)>는 부풀린 천 위에 털실을 감싸 만든 둥근 세포 모양의 작품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바느질을 해서 만든 두 작품은 각각 다른 작품이지만, 서로의 공간과 이어지며 한 몸처럼 연결되어 보인다. 작가는 이 작품이 “따뜻한 외침이자 메아리처럼 느껴지길 바란다”고 말한다.

김은정의 작업은 ‘촉각’, 즉 손끝의 감각에서 시작한다. 눈으로 보는 감각인 시각이 물체와 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보는 감각이라면, 촉각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느끼는 감각이다. 인간은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만지고 느끼며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천을 만지고, 바느질하고, 털실을 감싸는 과정 동안 경험하는 촉각을 몸에 간직한다.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시간과 손길이 점점 더해지면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조각이 만들어진다.

김은정은 자기 몸의 움직임과 몸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을 손의 움직임, 몸의 노동,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실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가 작품에서 몸을 직접 그리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다른 어떤 작품보다 몸의 움직임과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말루마(Maluma)>와 <소로야(Soloya)>는 모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작가가 만든 단어다. 작가는 이 단어들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굴러 나오는 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태양, 사랑, 따뜻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작가가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과 감각을 담기 위해서다. 작가에게 언어는 생각과 몸이 만나는 또 하나의 예술이다.

김은정의 작품을 보면 시간이 쌓이고, 감각이 이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바느질해 작품을 만든다. 그 정성스러운 몸짓 속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당신에게 태양이 있기를, 그리고 비도, 비가 필요하다면.”

- 페르난두 페소아

## 비평 워크숍

허겸 작가

낮은 곳의 풍경들 | 전소정(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

---

옥상으로 가는 계단은 늘 어두웠다. 바람에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오후의 빛이 얇게 스며들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오래된 철문을 밀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묵직한 소리가 도시를 향해 낮게 번졌다.

도시는 멀리서 볼 때만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빛나는 창들이 반사한 노을에 고요하게 번지며 경계를 지워 나갔다. 낮은 저층 주택들과 유리 외벽의 고층 빌딩들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조용히 섞여 있었다. 그런 조화는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만 가능한 착시였다. 그는 조감이 허락한 잠깐의 조화를 끌어안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풍경은 부서지고, 파편처럼 떨어져 나온 감정들이 발밑에 흩어진다. 이름을 갖지 않은 감정들이 먼지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한때 사람들을 그렸다. 대낮 공원 나무 뒤에서 누군가를 피해 숨은 듯한 노인, 버스정류장에서 중얼거리는 남자, 새벽에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우며 허공에 침을 뱉는 여자. 그들은 어떤 얼굴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림 속으로 데려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말은 언제나 늦게 따라왔다. 감정이 먼저 도착하고, 그것이 사라질 무렵에야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림은 언어가 아니라 감각이었다. 말보다 먼저 도달하고, 기억보다 오래 남았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사람을 그릴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기 힘들었다. 그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는 자주 침묵했다. 대신 그는 도시를 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본 도시를, 높은 데서 내려다본 풍경을. 불이 꺼진 쇼핑몰과, 아무도 살지 않는 새 아파트의 불빛, 잊힌 채 남겨진 골목과 무너진 담벼락들.

---

도시는 어딘가 기이하게 밝고, 동시에 어두웠다. 그는 색을 흐릿하게 만들고, 선을 지웠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어떤 회색의 감정. 그것은 도시가 그에게 보내는 무표정한 얼굴 같았다. 침묵의 얼굴. 거기에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이름을 붙이는 건 쉽지만, 그는 그저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작업실 창밖으로,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계단 끝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큰 가방을 내려놓고, 걸옷을 난간에 널었다. 마치 옷을 햇볕에 말리는 것처럼. 그의 눈은 어디론가 고정되어 있었고, 몸은 바람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는 자리에 앉아 다시 도시를 그렸다. 더 이상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머물던 자리들. 무언가가 사라지고 남긴 정서들. 그림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색은 얼어졌으며,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도시를 그리고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그림 앞에 서서, 아주 잠시라도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 비평 워크숍 - 쉬운해설

허겸 작가

낮은 곳의 풍경들 | 전소정(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

---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늘 어두웠다. 바람 때문에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열린 문틈으로 오후의 빛이 얇게 들어왔다. 작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오래된 철문을 밀었다. 낮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도시를 향해 울리는 듯했다.

도시는 멀리서 볼 때만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수많은 창문에 비친 노을빛이 마치 하나의 빛처럼 보일 때면, 낮은 집과 높은 빌딩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서로 다른 때에 지어진 건물들이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조용히 섞여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볼 때만 어울려 보였지, 사실은 전혀 다른 건물이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건물들은 각자의 모습이 뚜렷해졌다. 작가는 가까이에서 건물의 차이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너진 마음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작가는 예전에 사람을 그렸다. 대낮의 공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노인, 버스정류장에서 혼잣말하는 남자, 새벽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침을 뱉는 여자를 그렸다. 그들은 이름이 없었고,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작가는 그들을 오래 바라보았고, 그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왜 그들을 그리는지, 그들을 그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일단 그림을 그렸다. 시간이 지나면 왜 그때 그 그림을 그렸는지 알게 되기도 했다. 그래서 작가에게 그림은 언어가 아니라 감각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더 이상 사람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기가 힘들어졌다. 대신에 작가는 도시를 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본 도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풍경, 불 꺼진 쇼핑몰, 사람이 살지 않는 새 아파트의 불빛, 사람이 없는 골목과 무너진 담벼락들을.

작가가 그린 도시에는 이상한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다. 작가는 색을 흐리게 만들고, 선을 지웠다. 그렇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회색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누군가는 작가의 그림을 슬픔이나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작가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작가의 작업실 창밖으로 낡은 겂옷을 입은 노인이 보였다. 노인은 계단 끝에 서서 큰 가방을 내려놓고, 겂옷을 난간\*에 걸었다. 노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가는 한참 동안 노인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돌렸다.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노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작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도시를 그렸다. 이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머물렀던 자리만이 남아 있다. 무언가가 사라진 뒤에 남은 공기와 감정이 캔버스\* 위에 담긴다. 작가의 그림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색은 얼어졌으며, 빛은 사라졌다. 작가는 그렇게 여전히 도시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그림 앞에 서서, 아주 잠시라도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난간: 계단이나 다리 끝에 세워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

\*캔버스: 기름이 섞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천

## 비평 워크숍

위혜승 작가

시간의 풍경이 된 피부들 | 최영건(소설가, 미술비평가)

심상산수화(心象山水畫)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형상을 담아낸 산수화라는 뜻이다. 이 말에는 마음에 모양새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 그 모양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바람이 깃든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모습을 주어 눈에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림은 그런 방도 가운데 귀중한 하나다. 위혜승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풍경을 그린 산수화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심상산수화라는 부름을 떠올렸다. 화폭 속 흥터는 몸이라 불리는 검고 붉은 풍경 속으로 들어서 헤매기 위한 길들 같았다. 헤매다가 영영 돌아갈 곳을 잃게 하는 길은 아니다. 자기가 모르던 시간의 풍경 속으로 들어서게 하는 길이었다.

위혜승에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의 덩이가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 치료와 수술을 계속하던 나날 속에서 까맣게 잘려나간 시간들이다. 수술은 환자에게 깊은 암전(暗轉)이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기’로 감각되는 것을 하염없이 잃는다. 자기라고 불리던 몸을 망각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증언하는 것은 흥터다. 사라진 시간 뒤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남는다. 잃어버림과 잃어버려지지 않음이 겹쳐져 어느 몸에 하나의 길을 남긴다. 위혜승이 그린 피부를 마주하고 내가 본 것은 그런 길이 있는 풍경이었다. 그는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러나 그를 그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가 망실한 시간을 품은 피부의 풍경이다. 그 길들은 흥터라 불린다.

다와다 요코는 피부를 세계가 다른 세계와 떼어놓는 막이라 말했다.<sup>1)</sup> 이 말속에는 세계가 다른 세계와 피부라는 얇은 막으로 맞닿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깃들여 있다. 흥터는 이 얇은 막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열림의 흔적이다. 이 열림은 한 뭉텅이의 시간이 사라지고 지나간 뒤로도 그 없음과 있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시간이 사라졌다. 기억은 없다. 그러나 여기 또렷이 남은 것이 있다. 이 사실은 흥터라는 가장 내밀한 것으로부터 가장 보편적인 더듬거림을 길어올린다. 무언가가 망실된 뒤로 그 부재와 우리를 연결하는 것들, 희미하지만 끝없이 우리를 우리로 살게 하는 흔적들, 우리는 그들으로써 우리가 된다.

위혜승 작가의 몸들은 빈 곳에 시간의 겹을 덧씌우며 태어난다. 앎과 모름의 시간들이 하나의 몸에 켜켜이 겹치듯이, 그의 작품들도 겹들이 더해가며 스스로가 되었다. 화폭에 처음 입혀지는 것은 돌가루라는 단단함이다. 작업의 과정 속에는 자연스레 기다림의 시간이 기입된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화폭에 돌가루를 입힌 뒤 기다리는 휴지(休止)의 시간은, 앎과 모름의 경계를 가늠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돌의 표면이 곳곳마다 어떤 형태와 굴곡, 거칠기를 가지게 될지 그 결과물은 작가조차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처음에는 돌가루가 입혀진 표면을 원하는 화폭으로 삼고자 갈아내던 일조차, 점차 떨어내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 통제 불능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의 몸으로 삼았다.

돌가루를 입힌 표면에 살로 돌아나는 것은 붉은 흙(朱土)과 검은 차(黑茶)와 같은 이름의 색채들이다. 돌가루의 표면에 겹쳐지는 색채의 수는 다섯 가지쯤으로 한정된다. 그가 처음에 이런 작업에 이끌리게 된 것은 화폭에 번지는 물자국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번지는 연한 물자국들을 여러 번 덧입혀야 비로소 원하던 색에 다다를 수 있다. 안료에는 입자가 잘 갈리는 색과 그렇지 않은 색이 있다. 거친 가루들이 물 아래 가라앉은 뒤의 맑음만이 그림에 쓰인다. 작가는 그 맑은 색채들을 겹겹이 입혀 피부를 만들어낸다. 처음에 그는 자기의 몸을 그리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것이 자기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림 스스로 어느 몸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몸들에는 이제 저마다의 피부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닮아 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경계와 접촉의 지점이다. 우리로부터 가장 바깥인 것, 우리가 끝나는 지점에 피부가 있다. 그러니 피부는 나이자 내가 속한 풍경의 일부다.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와 떼어놓는 막이자,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와 겹쳐지는 접촉의 지점이다. 피부라 불리는 나의 경계에는 나와 세계가 뒤섞인 흔적들이 겹겹이 겹쳐져 있다. 흥터는 세계가 나를 열어 틈입해온 가장 강렬한 흔적이다. 흥터가 돌아났을 때 나는 나의 일부를 잃는다. 때로는 나를

---

감각하던 시간의 덩이마저 잃는다. 위혜승은 그 잃어버림과 상실의 흔적을, 다시금 나를 증언하는 풍경으로 삼았다. 잃어버린 것들이 나를 있게 한다. 그가 그려낸 피부는 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또렷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 위혜승이 그린 이 풍경 속에서는 헤매더라도 두렵지 않다. 어느 순간에나 끝내 찾아내야 할 유일한 것, 나를 발견해 내는 몸들이기 때문이다.

---

1 ) 다와다 요코, 『목욕탕』, 책읽는수요일, 2023, 99쪽.

## 비평 워크숍 - 쉬운해설

위혜승 작가

시간의 풍경이 된 피부들 | 최영건(소설가, 미술비평가)

---

‘심상산수화’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모양을 그린 산수화\*라는 뜻이다. 이 말에는 ‘마음에도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을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 그림은 그런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의 하나다.

위혜승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실제 풍경을 그린 산수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심상산수화’라는 말이 떠올랐다. 작가의 그림 속 흉터는 마치 하나의 길처럼 보였다. 그 길은 헤매게 하지만, 길을 잃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작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 속의 풍경으로 이끄는 길이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치료와 수술을 반복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때의 기억 중 몇 가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수술은 환자에게 깊은 어둠의 시간, 즉 자신을 잃는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환자는 자기 자신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잃고 몸이라는 존재를 잠시 잊는다.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증언\*하는 것은 흉터다. 시간은 사라져도, 흉터는 남는다. 흉터를 보면 잃어버린 것과 남겨진 것이 겹쳐 하나의 길이 되어 몸 위에 새겨지는 것 같다. 위혜승의 그림 속 피부는 그런 기억의 길이 있는 풍경이다. 작가가 잊은 시간은 그의 몸에, 그리고 그림에 남아 있다.

작가 다와다 요코는 “피부는 한 세계를 다른 세계와 구분하는 얇은 막”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동시에 피부가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흉터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시간과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흔적은 우리 안에 없는 것과 바깥 세계를 연결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잃어버린 것의 흔적으로 다시 자신을 알아간다.

위혜승이 그린 몸 그림은 빈 공간에 여러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돌가루를 입힌다. 돌이 굳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가의 작업은 느리게 진행된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작가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돌가루가 어떻게 굳어질지는 작가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완전히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는 손을 내려놓고, 자기가 모르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작가는 그렇게 굳어진 돌가루 위로 '붉은 흙'과 '검은 차' 같은 색을 겹겹이 입힌다. 물에 번진 자국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흔적을 쌓다 보면, 비로소 작가가 원하는 색이 된다.

위혜승은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그린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자기의 몸뿐 아니라 '누구의 몸도 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작가의 그림 속 몸들은 이제 작가의 피부뿐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닮았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자, 바깥에 있는 다른 것과 가장 처음 맞닿는 것이다. 피부는 안과 밖이 구분되는 선이자, 다른 세상과 겹치는 연결의 선이다. 피부가 나와 나 아닌 세계가 뒤섞인 것이라고 할 때, 흉터는 다른 세계가 나에게 들어온 가장 강한 흔적이다. 흉터가 생겼을 때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만, 대신에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결국 위혜승의 그림은 잃어버린 것과 새롭게 만난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피부들은 사라진 시간의 증언이자, 여전히 살아 있는 몸의 이야기다. 그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헤맬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 길은 결국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산수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증언: 어떤 일이 사실임을 밝혀 주는 말

## 비평 워크숍

곽요한 작가

두 번째인 처음, 스트로크로부터 | 양효실(미술비평가)

2021년 곽요한 작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을 중증치료실, 재활병원, 국립재활원으로 옮겨지며, 병상의 환자들에 둘러싸여 죽음과 삶을 오가는 경험을 했고, 외아들 요한의 운전사—돌보미를 자처한 아버지와 의사, 물리치료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는 질환, 35세~74세 사이에 생애 첫 번째로 발병한다는 뇌졸중을 마흔 직전에 겪은 요한의 경험은 통계학적/진단학적 사실에 의해 설명되는, 말하자면 누군가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겪고 있는 사고였다.

(노화와 같은 후발장애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살아생전의 불운이나 조건이라고 할 때 요한은 40 즈음에 첫 번째 후발 장애를 겪은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절대적 취약성의 상태에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되어, 나름 앉아 있을 때는 누구도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요한의 반신불수 상태를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뇌혈관 질환으로 요한은 쓰러졌고 일어났고 절룩거리며 걸을 수 있고, 예전과 똑같이 말할 수 있고, 왼편 마비로 인해 계속 오른손잡이로서 쓰고 그릴 수 있다. 투잡 쓰리잡을 전전하는 가난한 예술가들 사이에서 4대 보험이 나오는 IT 기업에 꽃 그림을 그려주는 (미적)노동자로 작지만 월급을 받는 장애인 예술가—노동자로 취직도 했다. 사고는 중국에는 선물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어 있고, 운과 불운은 뒤얽혀 있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긍정은 계속 살아내려는 관성에 기름칠을 해준다. 울산북구예술창작소에서 5년 전에 비평가와 작가로 만나 클로짓 게이의 알아볼 수 없는 장면들—세팅들로서의 요한의 회화를 놓고 대화 아닌 대화를 했던 내게 이번 요한의 모습은 충격이었고 이제는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편해졌다(세 번째 만나던 날 요한은 자신의 마비된 왼팔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타투를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예의 무표정한 얼굴로 개그를 쳤다).

대놓고 삐딱하거나 위반적이지는 않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요한은 발병 전에는 장지에 수묵화나 채색화라는 전통 동양화 기법으로 그리지 ‘않았고’, 캔버스에 아크릴이란 서양화 기법으로 그릴 때에는 추상 형식과 리얼리즘적 재현

사이에서 긴장을 놓지 않은 상태로 모호성-퀴어성을 붙들었다. 동양화 관습 안에서 요한은 “본디 기록화에서 시작되었다는” 펜드로잉을 “선택”했는데, 그에게 펜드로잉은 “잊혀져가는 존재들의 마지막 모습과 그들의 못다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어울리는 도구”로 전유되었다. 0.05밀리의 펜으로 선을 긋고 끊고 축적해서 그린 2014년의 나무껍질 드로잉(가령 <표피의 폭발>이나 <흉터>와 같은)은 드로잉을 설명해-안정화해 줄 어떤 맥락도 이야기도 없이, 부드러운 나무의 속살(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속살과의 분리를 함축한 거칠고-단단하고-두꺼운 껍질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반복-축적-수행으로서의 드로잉 자체, 그리고 나무 껍질의 어떤 사회적-기호적 의미도 남지 않은 사물성의 현시를 통해 관람자에게 불쾌감 내지 불안을 초래했다. 캔버스에 아크릴을 얇게 펴 바르고 원, 삼각형과 같은 추상적 기호를 올린 요한의 일종의 서양화는 세월호의 트라우마-비극에 대한 작가의 반응-발화였다. 세월호 사건의 대표적/재현적 이미지인 뒤집힌 배의 마지막 부분을 삼각형으로 전치시키고, 원과 사각형, 곡선과 직선 등으로 단순화해서 일견 회화의 표면이나 환원적 기호만 남겨놓은 추상화처럼 (잘못)읽히게 한 요한의 이중화 전략은 저쪽 세월호를 보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쪽의 관찰자로서의 자신의 우울, 그리고 현실에 침묵하며 자기-지시성으로 은둔한 모더니즘 회화 혹은 서양화의 동양화 못지않은 반-시대성을 헤쳐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스스로를 관찰자로 호명하고, 개인전 제목으로도 관찰자라는 ‘정체성’을 자주 사용했던 요한은 이제 관찰자일 수 없다. 그는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면,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면 모두가 알아보는 장애인, 클로짓 게이로서 숨어있지만(이 문장은 좀 더 보충, 설명되어야 할 이상한 문장이지만, 일단 이렇게 남겨둔다) 장애인으로서의 단박에 발각당하는 운명이다. 발작/뇌졸중(stroke) 이후 마침내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요한은 붓질(stroke)을 했다. 발작과 붓질이 일종의 발작 같은 것이라면, 장애인-되기로 인한 요한의 몸이 겪은 발작으로부터 화가되기에 입문 중인 요한의 붓질의 첫 캔버스와의 만남이다. 이번에는 캔버스에

---

매트하게 펴 바른 물감, 고요하고 맛있는, 회화의 회화성이 거의 제거된 물감이 아니다. 이번 스트로크는 거칠고 뭉툭하고 일종의 두께를 갖는 붓질이다. 기존의 구도-완성을 염두에 둔 차갑고 침묵하는 회화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캔버스에 밀착되는 붓, 즉흥적으로 방향을 선택하며 나아가거나 중첩되는 획들에서 시작하는, 신체적 경련/발작에 대한 미적 반복/유희를 각인한 것이다. 멀리 있는 게이 커뮤니티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고립된 퀴어로서의, 말할 수 없는 박탈의 상태로 트라우마에 대한 회화적 번역을 기도했던 사회적 작가로서의 요한 대신에 혼자서도 지금 잘 즐기는, 배우고 극복하고 의심하는 예술의 기법들에 대한 자의식적 문제화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아이의 놀이의 우발성이나 실험성을 즐기는 요한이 있다. “손상된 신체를 이용해 장애를 가진 신체가 회화에서 가질 수 있는 위치를 탐색 중”이라는 요한의 즐기기, 약간의 유머, 심지어 딱 한 장만 나와서 그쪽으로 갈지 말지 점칠 수 없는 ‘자화상’ 드로잉, 자학과 연민이 둘러싼 재현적 드로잉이 담지한 긍정 등등을 놓고볼 때, 기존의 배우고 외운 것을 잊고 “회복기 환자”(보들레르)처럼 매일 최초인 요한의 “미래”가 전도유망하다.



## 비평 워크숍 - 쉬운해설

곽요한 작가

두 번째인 처음, 스트로크로부터 | 양효실(미술비평가)

2021년, 곽요한 작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 간 작가는 중환자실, 재활병원, 국립재활원을 다니며 죽음과 삶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그의 곁에는 늘 아버지와 의사, 물리치료사가 있었다. 아버지는 운전사이자 돌보미가 되었고, 작가는 그들의 도움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병이다. 보통 35세에서 74세 사이에 처음 생긴다. 작가는 40세를 앞두고 이 병을 겪었다. 작가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누구에게나 두려운 사고였다. 이제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지만, 앉아 있을 때는 걸음으로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왼쪽이 마비되었지만, 여전히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사고 이후, 작가는 장애인 예술가이자 노동자로서 IT 회사에서 꽃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내 왼팔에 ‘내부 수리\* 중’이라고 타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말했다. 작가의 농담에는 다시 삶을 살게 된 사람의 유머와 긍정이 담겨 있었다.

곽요한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하지만 동양화를 그릴 때나 심지어는 서양화를 그릴 때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작가의 그림은 언제나 사실 같지 않은 그림과 사실 같은 그림 사이를 오가며 분명하지 않은 느낌을 표현해왔다.

사고 전, 곽요한은 펜 드로잉을 통해 사라져 가는 존재들을 기록했다. 0.05mm 펜으로 그린 <표피의 폭발>, <흉터> 같은 작품은 나무껍질의 거칠고 단단한 겉면에 집중해서 그렸다. 작가의 그림은 이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행동에 가까워서, 작품을 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며 집중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

작가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그림도 그렸다. 뒤집힌 배의 모양을 삼각형으로 바꾸고, 원과 사각형 등으로 단순하게 표현했다. 이 작품은 참사\*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화가 자신의 우울과 침묵을 드러냈다.

곽요한은 자신을 늘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관찰하는 사람일 수 없다. 작가가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나서면, 모두가 그를 장애인으로 본다. 숨겨진 게이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그는 이제 사고 이후로 감춰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뇌졸중/발작은 영어로 스트로크(stroke), 붓질도 영어로 스트로크(stroke)라고 한다. 작가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첫 붓질은 곧 그가 장애인 화가가 되는 첫 번째 ‘발작’이었다. 장애인 화가가 된 이후, 작가의 붓질은 예전과 다르다. 부드럽게 펴 바른 물감 대신, 거칠고 두꺼운 선이 그림을 가득 채운다. 계획된 위치도, 완성된 모양도 없다. 그는 갑자기 그림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면서 몸의 떨림과 움직임을 그대로 남긴다. 작가의 그림은 이제 그의 몸의 흔적이자 기록이다.

곽요한은 “손상된 몸으로, 그림 속에서 내가 있을 곳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매일이 처음 같고, 매일이 회복의 날이다. 보들레르의 말처럼, 작가는 “회복기 환자”로 살아간다. 곽요한의 두 번째 삶, 그리고 두 번째 예술은 지금 막 다시 시작되고 있다.

\*뇌졸중: 뇌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손발이 마비되거나, 언어 장애를 겪거나,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병

\*내부 수리: 안쪽을 고치는 일

\*참사: 끔찍한 사고

\*재현: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시 나타내는 일

## 비평 워크숍

윤하균 작가

세 번의 언급 - 2025년 윤하균에게 보내는 글 | 백필균(독립 큐레이터)

---

늑대인간과 도마뱀과 지옥문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다. 무(無)의 장막에 숨은 늑대인간을 뒤따르고, 백(白)의 영토에서 고개 돌리는 노란점무늬왕도마뱀을 초대하고, 두 손바닥만 한 동물 머리뼈와 선반이 서로에게 머리와 기둥을 자처하여 지옥문을 괴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흐르는 윤하균의 작업실에서, 담화자는 숙고한다. 어떻게 늑대인간이 이토록 담할(淡-) 수 있는지, 왜 도마뱀 배에 노란점무늬를 굳이 그리는지, 그리고 어째서 칠흑의 지옥문이 마땅히 혁명적인지.

사흘 전 언급 ; 스스로 사라지는 세계

윤하균에게 그가 먹을 담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덧붙이는 물음에서 수묵과 여백 사이에 생성과 소멸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을 때—그는 대학교를 다니기 이전에 읽은 어느 소설을 언급했다. 고마츠 사쿄 작가가 쓴 『홍포한 입』. 한 사람이 이유 모를 극도의 분노와 자포자기에 사로잡혀 자기 신체를 차례차례 절단하고 요리해 먹는 기괴한 이야기. 팔과 다리, 내장, 심지어 얼굴과 뇌 일부까지 먹어 치우고, 결국 입만 남은 상태에서 기계 팔로 자기 뇌를 맛보지만, 이미 미각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 사건 현장을 발견한 형사들이 이를 타살로 위장 발표하자 주인공의 해골이 목격자(형사)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야기. 고마츠 사쿄가 쓰고 윤하균이 읽어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선택처럼, 회화공간에서 윤하균의 늑대인간은 그의 마지막 형태를 결정하는, 환경이 주체에게 내거는 조건들 가운데 본디 자유로운 선택지를 취하는 능동적 삶의 주인으로서 여백의 심연으로 향한다. 다리가 분명하지 않는 형태와 그 움직임은 위 소설처럼 홍포한 입의 주인을 단지 수동적 (삶의)형태로 후속 정의하는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는 아(我)의 삶이다. 한없이 여리고 연하고 열지만 되려 그 음(陰)의 감각을 양(陽)의 이야기와 접붙이는 회화는 활기가 충만하게 흐른다.

이틀 전 언급 ; 자세 조정 회화

늦은 봄 혜화동 작업실 방문자는 윤하균이 언급한 자세 교정 인형을 상상한다. 사용자가 인형의 긴 팔을 끌어안으면 나뭇잎의 무게로 좌식에서 중력과 균형을 느끼며 기울기 영점을 찾는다. 허리가 굽지 않는 자세를 보조하는 장치가 윤하균의 주된 좌식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특히 작업에서 붓을 드는 자세를 가꾸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현대 문명의 어느 시점에 이 장치가 발명되었을지 짐작하다가 그 유래와 상관없이 윤하균이 인형 사용과 더불어 어느 동물 형태의 귀여움에 노출되는 것과 그의 지난 동물 그림들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생각해본다. 특정한 보조가 필요한 모두에게 귀여움은 무해하다. 그러기에 귀여운 존재는 외부와 적잖게 단절된 누군가의 울타리 안으로 기쁘게 초대될 수 있다. 주름이 많은 광목에 먹과 크레파스로 그린 노란점무늬왕도마뱀 그림에서 촉촉한 붓질과 건조한 붓질, 상반된 기운들의 어우러짐은 회화의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는 물질의 자의식이다. 이미 기울어진 세계에서 자신마저 기울지 않도록, 의식은 때로 침범침범하고 때때로 우두커니 멈춰선다. 그것은 윤하균을 마주하고, 윤하균은 그것을 응시하며 자세를 조정한다.

하루 전 언급 ; 이기는 삶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지는 세계로 한 걸음씩 내걸는 까닭에, 윤하균은 자신에게 내걸린 사회적 규율을 '홍포한 입'처럼 천천히 음미한다. 그가 자기 안팎을 관조하는 사이 사물 몇 가지를 옷칠하는 작업은 마녀가 재물을 어둠에 담그는 의식과 닮는다. 그것에 지옥문이라는 이름은 세계와 세계 사이 경계선에 서있거나 지나치는 수문장 또는 여행자의 뒤통을 윤하균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다. 변신하는, 전환하는, 탈각하는 사물을 그것이 속한 본래 체계로부터 해방하는 의식은 마땅하다. 작가 스스로도 특정 매체에 매몰되지 않는 권리는 자명하다. 전통과 현대의 고루한 변화가 급진적이거나, 때로 미숙하기에 완성되는 미학은 모두의 뒤통으로 움직인다. 그는 내게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긴다"는 의미는 '불행을 막아낸다'는 것이고, 잘못된 질서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다"라는

---

윤하균의 말에서 그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그의 의지가 굳건한지 가늠한다.  
윤하균이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담담한 수묵은 수묵답지 않은 수묵으로 수묵답게  
수묵을 이긴다. 새삼 수묵을 깨무는 가을날, 새벽을 깨는 입이 '벽' 너머 세계마저  
'홍포하게' 삼킨다.



## 비평 워크숍 - 쉬운해설

윤하균 작가

세 번의 언급 - 2025년 윤하균에게 보내는 글 | 백필균(독립 큐레이터)

---

윤하균의 작업에는 늑대인간, 도마뱀, 지옥문이 함께 등장한다. 어떻게 늑대인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왜 도마뱀 배에는 노란 점무늬가 그려져 있을까? 어두운 지옥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 가지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바라보다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흘 전의 이야기 : 스스로 사라지는 세계

윤하균에게 왜 먹\*을 그렇게 부드럽게 사용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 읽은 한 소설을 이야기했다. 고마츠 사쿄의 『홍포한 입』이었다. 그 소설에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잘라 먹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렇게 몸을 점점 잃어가며 끝내 입만 남게 된 주인공은 죽기 직전에 자기 뇌를 먹으려 하지만, 이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시간이 지나 뼈만 남게 된 주인공을 보고 경찰이 타살\*이라고 발표하자, 주인공의 뼈가 그 경찰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윤하균이 그린 늑대인간은 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세상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존재다. 다리의 모양이 분명하지 않은 늑대인간의 모습과 움직임은 세상이 정한 대로 살지 않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 윤하균의 그림은 부드럽지만, 소설 속 이야기처럼 그의 그림 안에는 강한 힘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틀 전의 이야기 : 자세를 고치는 그림

윤하균의 작업실에는 자세 교정 인형이 있다. 앉은 채로 인형의 팔을 끌어안으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자세가 바르게 된다.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작가에게 이 인형은 어떤 의미일까? 혹시 작가가 동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인형 때문인걸까? 귀여운 동물 인형은 누구에게도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 귀여운 인형 덕분에 작가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것이다.

---

윤하균의 그림 속 노란점무늬왕도마뱀을 보면 특히 이런 균형과 감각이 잘 드러난다. 천 위에 먹과 크레파스로 그린 이 도마뱀은 촉촉한 붓질과 거친 선이 섞여 있다. 작가는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마저 기울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그의 그림은 그렇게 몸과 정신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하루 전의 이야기 : 이기는 삶

윤하균은 사회가 만든 규칙과 시선을 천천히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찾아낸다. 그가 물건에 옷칠\*을 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지켜내는 의식 같다. 그 속에서 그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지옥문’이라 불리는 새로운 문을 만든다.

윤하균은 하나의 재료나 방식으로만 작업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예술 작업을 통해 물건이 원래의 모습과 달라지도록 바꾼다. 이렇듯 윤하균의 자유로운 작업은 그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분명하게 하는 힘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긴다는 건 불행을 막고, 잘못된 질서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의 그림은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싸우며 만들어진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가 그린 수목화\*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든다.

\*먹: 베틀이라는 돌에 물을 붓고 갈아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검은 물감

\*타살: 남을 죽이는 일

\*저항: 어떤 힘이나 어려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옷칠: 가구나 나무 그릇을 빛나게 하려고 옷나무에서 나온 액체를 바르는 일

\*수목화: 먹을 진하게 쓰거나 연하게 쓰면서 그린 그림

## 비평 워크숍

김승현 작가

이미 잘하고 있는 작가에게 무슨 말을 더할까요? | 김현주(독립 큐레이터)

---

그래서 단 하나만을 엮었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계에서 고개를 돌려보자고.

<sup>1)</sup>김승현의 <우리의 세계>는 돌아본 ‘우리’의 세계다. 우리라는 말은 참 정겹고 또 값지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말이지만 모두가 품고 사는 말은 아니기도 하다. 어느새 실체가 희박해진 이 말 혹은 서로의 주위를 감싸는 온기를 잊고 있어 잃어버린 완전한 ‘우리’를 김승현으로부터 다시금 보고 느끼고 싶었다.

처음 작업실에서 본 완성작 <우리의 세계 Part 1>은 김승현이 주로 그려 온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담고 있다. 아마 김승현은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는데 전면 공간에는 다종의 바다생물이 즐비해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웠던 건 푸른 심해를 유영하는 물고기들 너머 열린 문이었다. 네모진 문 너머 펼쳐진 풍경은 나무숲과 나비들이다 각자 자유롭게 오히려 무심해서 서로를 해하지 않을 것만 같은 두 세계가 앞뒤로 포개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세계 안으로 더 들어가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로 저 문 너머로 내디딘 발걸음이 낳은 작품이 <우리의 세계 Part 2>다. <우리의 세계 Part 2>에서는 상상의 영역으로 남겼던 세계가 선명하게 일어난다. 문 너머 이 녹음 지대에는 공작새 두 마리가 유유자적 소일거리를 하고, 막연하게 분홍빛 가지를 띤 나무로 여겼던 것이 산호초의 형태로 분연히 드러나며 구름이려니 했던 하늘 모양이 고래로 변모해 있다. 발 딛기 전까지 막연했을 세계가 각각의 이유와 형상으로 구체화 됐다. 새처럼 나는 가오리와 물고기도 천진해서 귀엽다. <우리의 세계 Part 2>를 보고선 내친김에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보자고 권했다. <우리의 세계 Part 3>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로 나왔다. <우리의 세계>는 이처럼 ‘돌아보다’, ‘내디디다’, ‘나오다’ 등 동사(動詞)의 세계에서 파생된 작품들이다.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운신이 과제였고 앞으로는 과제인 김승현을 지켜보면서 다다른 비평의 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우리의 세계 Part 3>는 저만치에서 돌아본 <우리의 세계 Part 1>과의 조응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세계는 연장되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김승현만의 세계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돌아보기란 사실 간단하면서도 쉽지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세계와 나와 의 거리 설정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를 계기로 세계관을 이어보기를 권하고 싶었다. 유니버스는 마블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로의 초대는 특별한 이들만의 회동 아닌, 조금만 적극성을 띠면 가능한 범부(凡夫)의 일상이지 않던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계에서 고개를 돌려보자고 었은 말은 그 스스로 이어오고 있던 우리의 세계를 내친김에 한번 회화로 옮겨보자는 청유였다. 여기까지가 가볍게 그를 불러 환기해 본 <우리의 세계>이자 ‘우리’의 세계다. 여기까지의 서술이 김승현의 현재에 대한 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김승현으로부터 욕심을 내어 앞으로 보고 싶은 세계에 대한 내용이다.

김승현의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상물은 라바콘이다. 라바콘은 원뿔 모양의 교통 통제에 사용하는 표지 도구인데 맥락을 모를 땐 이질적일 수도 있으나 그에게 라바콘은 간절한 상징이기도 하다.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라바콘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예방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화면에 배치됐다.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의사 표명이면서 나만 다치지 않겠다는 갈급한 호소 아닌 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세계에서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고운 마음에서 비롯했다. 더 부연하지 않더라도 라바콘이 회화에 자리 잡은 이유를 짐작 가능하리라고 본다. 김승현의 회화는 ‘우리’에 대한 마음과,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와, ‘우리’를 돌아보고, 돌보는 암묵적인 약속을 담는다.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제안은 아직은 김승현에게 익숙하지만은 않은 창작의 방식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놓인 포석이 무얼까 궁금해서 그의 노트, 드로잉북,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회람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료까지 청해서 보다 보니 그가 언어와 수학에 상당한 재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포자(언어포기자),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만연한 가운데 언어와 수학 같은 세계의 약속에 친연성이 있다는 점을 김승현에게서 발견하니 새삼 욕심이 생긴다. 특히 그가 몇 해 전 음계를 무지개색으로 시각화한 작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이면의,

---

세계를 작동시키는 약속, 말하자면 그의 회화에서 상징으로 외연화되는 추상을 새로운 과제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싹텄다. 마침 준비하고 있는 정원 연작을 스케치 상태로 볼 수 있었다.

조감도 시점에서 포착한 원형 정원은 낱알의 정밀한 구현 이상으로 비추어진다. 정원 건축에 역사와 논리가 있듯 그의 정원 연작도 원형 공간 안에 구획을 지으며 심어놓은 그만의 논리가 엿보인다. 한때 정원 건축은 종교나 궁정을 위한 기능에 복무했다. 그러나 점차 공공정원의 확대로 인해 '우리'에게 한층 그 터가 열렸다. 정원 연작은 대칭을 이루는 공간 안에 변칙을 만드는 절묘한 요소들이 삽입되어 있고 오고 가는 자동차들을 통해서 이곳 또한 사람이 살고 거닐며 지나가는 장소임을 확인하게 한다. 김승현이 특별히 바다 생태계를 아껴 그려왔음은 사실이지만 바닷물 속에 잠기면 고요히 귀를 달게 되는, 그 세계만을 한정해서 그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는 몇 겹의 세계를 포개고 덧대며 그 과정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추상을 당장 간취해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외적 형상이 추상인 회화 아닌, 고도로 정제된 약속인 상징이 더욱 회화에서 발현되기를 바란다. 추측의 단서는 이미 그에게 있다. 나는 단 하나만을 엿을 뿐 그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그가 우리에게 다정한 만큼 나도 다정한 말을 건넨다.

---

1) 김승현의 포트폴리오에는 흰동가리, 무리쉬 아이돌, 블루탱, 옐로우 탱, 솔베감펍 해마 불가사리, 산호초, 말미잘, 해파리 등 즐겨 그리는 대상에 대한 소개가 있다.

## 비평 워크숍 - 쉬운해설

김승현 작가

이미 잘하고 있는 작가에게 무슨 말을 더할까요? | 김현주(독립 큐레이터)

---

그래서 나는 단 하나만 없었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계에서 고개를 한 번 돌려보자.”

김승현의 <우리의 세계>는 그렇게 돌아본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라는 말은 따뜻하고 소중하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서로를 감싸는 온기가 사라진 이때, 김승현의 작품은 잊고 있던 ‘우리’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작업실에서 처음 본 <우리의 세계 Part 1>은 김승현이 자주 그려온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었다. 그림 속에는 다양한 바다 생물이 가득했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 뒤편으로 한 개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너머에는 숲과 나비들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물속의 생명과 숲의 생명은 서로 다르지만, 누구도 누구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그 조용한 조화가 흥미로웠다. 그래서 나는 “저 문 너 머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의 세계 Part 2>다.

문 너머의 세계는 이제 뚜렷하게 드러난다. 공작새 두 마리가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분홍빛 나뭇가지인 줄 알았던 산호초가 살아났다. 하늘의 구름이라고 생각했던 건 거대한 고래로 변했고, 가오리와 물고기는 새처럼 날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세계 Part 2>에서는 상상 속의 세계가 현실처럼 펼쳐졌다.

나는 또다시 말했다 “한 번 더 고개를 돌려보자.” 그렇게 완성된 것이 <우리의 세계 Part 3>이다 <우리의 세계> 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이어지는 세 작품은 ‘돌아보다’, ‘내딛다’, ‘나오다’ 같은 동사\*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동사들은 작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시선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작가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작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연결이다. 김승현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대상은 ‘라바콘’이다. 라바콘은 교통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원뿔 모양의 도구다. 처음엔 그림 속 라바콘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작가에게 라바콘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다. 영화 ‘토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라바콘처럼, 작가는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바콘을 그렸다.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의 신호인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늘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 ‘우리’를 함께 돌보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작가의 노트와 드로잉북을 보면, 작가는 언어와 수학도 잘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악보를 무지개색으로 표현한 작품도 만들었다. 이처럼 작가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과 질서에도 깊은 관심이 있다. 작가가 새롭게 준비 중인 ‘정원’ 시리즈는 작가의 이런 성향이 잘 드러 난다. 작품 속 정원은 위에서 내려다본 둥근 정원인데, 아주 섬세하게 그려진 공간 속에서 작가만의 질서를 품고 있다.

김승현은 오랫동안 바닷속을 그려왔다. 그러나 그의 세계는 바다에만 머물지 않는다. 작가는 서로 다른 세계를 겹치고, 이어붙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그린다. 작가의 그림은 아직 완전한 추상화\*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추상화의 표현을 넘어선 표현의 세계가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시 다정하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 다정한 세계를, 우리 모두에게 계속 보여 주세요.”

\*동사: 사물이 하는 일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통제: 정해진 목적이나 규칙에 맞게 행동을 못 하게 하거나 조심하게 하는 것

\*추상화: 사실처럼 그리지 않고, 점·선·면·색으로 느낌을 표현한 그림

## 작가 이력

김은정

### 학력

---

2023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박사 수료, 서울  
2012 School of Visual Arts, Fine Arts 석사, 뉴욕, 미국  
2009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서울  
2006 고려대학교 미술학부 조소전공 학사, 서울

### 개인전

---

2024 《Sound Shell Shush》, 아카이브 스페이스 JUNSIJANG, 서울  
2024 《자기의 한 꼬트머리-손》, 인사1010 갤러리, 서울  
2024 《손끝의 소리》, 오분의 일 갤러리, 광명  
2023 《VIBRANTMATTER》,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레지던시

---

2025 서울문화재단 장예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서울  
2024 서울문화재단 장예예술창작센터 14기 입주작가, 서울  
2013 MERIT GRANT, Contemporary Artist Center at Woodside, 뉴욕, 미국  
2012 ARTIST GRANT, Vermont Studio Center, 버몬트, 미국

## 단체전

---

- 2025 《PALETTE: 우리가 사는 세상》, 소다미술관, 경기
- 2025 《투명한 몸짓들》, 신한갤러리, 서울
- 2024 《희망 대신 욕망》,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24 《기울기 기울이기》, 예술의전당, 서울
- 2024 《UNITED PROJECT ART》,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 2021 《미팅룸 571 141 813》, 갤러리 H, 서울
- 2016 《아시아프 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DDP, 서울
- 2013 《Flow Follow Flow》, Rupert Ravens Nexxt, 뉴저지, 미국
- 2013 《239 Days》, Allegra LaViolaGallery, 뉴욕, 미국
- 2013 Dumbo Arts Festival, Back Pack Gallery, 뉴욕, 미국
- 2012 Governors Island Art Fair, Back Pack Gallery, 뉴욕, 미국
- 2012 《Natural》, The Visual Arts Gallery, 뉴욕, 미국
- 2012 《Pulse》, The Invisible Dog Gallery, 뉴욕, 미국

## 작가 이력

허겸

학력

---

202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개인전

---

2022 《OrdinaryWorld》 나이브아트갤러리  
2016 《18》 갤러리 가이아

레지던시

---

2025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2024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4기 입주작가

## 단체전

---

- 2025 《예담화경》 모두미술공간
- 2025 《투명한 몸짓들》 신한갤러리
- 2025 《시와 찻잔 사이》 교하아트센터
- 2024 《기울기 기울이기》 예술의전당
- 2024 《(Lands)cape: 이루는 것들》 아트강스페이스
- 2024 산, 뜰 기획전 《이제 다시 봄》 갤러리 뜰
- 2023 《2023 모두의 아지트》 나이브아트갤러리
- 2022 《다시, 안아 봄》 교하아트센터
- 2021 《안녕을 위한 베타테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 2019 《꿈길》 교하아트센터

## 작가 이력

위혜승

## 학력

---

2025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석사 수료

2023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부 한국화전공 학사 졸업

2019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34회 졸업

## 개인전

---

2025 《EPIDERMIS : EPISODE》, 성균갤러리, 서울

2025 《감각의 미로》, K옥션 신관, 서울

## 레지던시

---

2025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 단체전

---

- 2025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동문전 《Re : union》, 성균갤러리, 서울
- 2025 제28회 예맥희 《묵 시대정신 MZ》, 양림미술관, 광주
- 2024 제27회 예맥희 《colorful persona》, 민아트갤러리, 서울
- 2024 은평 청년지원공동체 소울 《MBTI 展》, 은평문화예술회관, 서울
- 2023 제36회 선묵회정기전 《검정번뇌전》,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 2023 갤러리코사확장개관전 2부 《공간여행》, 인사동갤러리코사, 서울
- 2022 제19회 한그림동아리정기전 《[蒙喪]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 2022 제2회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34회 졸업동문전 《視線:one's eyes》,  
민아트갤러리, 광주

## 수상

---

- 2022 제35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최우수상》
- 2022 제58회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 2022 제25회 전국바다미술대전 《입선》
- 2021 제24회 전국바다미술대전 《우수상》
- 2021 제57회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 2021 제31회 배동신어등미술제 《특선》
- 2021 제34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입선》
- 2021 제33회 대한민국한국화특장전 《입선》
- 2021 제37회 무등미술대전 《입선》

## 작가 이력

곽요한

### 학력

---

2016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졸업

2011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

2020 《관찰자 관찰 ; From Bottom to Bottom》,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 울산

2020 《곽요한 개인전》, 아트허브 온라인 갤러리, [www.arthub.co.kr](http://www.arthub.co.kr)

2020 《관찰자 ; 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서귀포

2018 《염포예술창작소 입주 작가 결과보고전》, 소금포갤러리, 울산

2017 《2017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보이지 않는, 보이게 하는》, 우민아트센터, 청주

### 레지던시

---

2025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2020 북구예술창작소 장기 입주 (울산, 2020. 3월 ~ 2020. 12월)

2019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하반기 입주 (서귀포, 2019. 8월 ~ 2019. 12월)

2018 염포예술창작소 하반기 입주 (울산, 2018. 9월 ~ 2018.12월)

## 단체전

---

2020 《다대포 엑스웍 아트 페스티벌 ‘등근 땅 위에서’》, 다대포  
태양식품고추방앗간, 부산

2020 《좌초된 지각체》, 무악파출소, 무중력지대 서대문, 서울

2020 《아트프로젝트 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 울산

2020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 울산

2019 《5감제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서귀포

2018 《소금나는 갯가 Part II》, 소금포갤러리, 울산

2018 《우리는 모두 무언가가 보고 싶다》, 북아현동 113-25, 서울

2018 《제3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 장육진미술관, 양주

2017 《제2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 장육진미술관, 양주

## 작가 이력

윤하균

## 학력

---

202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기타

---

202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리서치 선정

## 레지던시

---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2024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4기 입주작가

## 단체전

---

- 2025 《투명한 몸짓들》, 신한갤러리
- 2024 《기울기 기울이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7전시실
-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아트월-오늘의 수목》
- 2017 《BIG-I Art Project(제7회공모전)》, 오사카,요코하마,도쿄 순회전시
- 2016 ArtSpace@SNU 《Don't Stop Me Now》, 서울대학교문화관대전시실
- 2015 알파갤러리 《즉흥과 감성사이》
- 2014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기념전 《희망빛을 그리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2014 강남장애인복지관 《소원을빌다》, 브라운핸즈쇼룸&카페

## 수상

---

- 2017 BIG-I Art Project Runner-up 수상
- 2016 제38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입선
- 2016 제37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장려상과 특선
- 2014 희망키움경진대회 서울 구미전(우수상)

## 작가 이력

김승현

## 학력

---

2020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과 졸업

## 개인전

---

2024 《My Diary》, 더아트나인 갤러리(서울)

## 레지던시

---

2025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2024 서울문화재단X우리금융미래재단 발달장애예술인 육성사업 <우리시각>  
공모 선정

## 단체전

---

2025 《GIAF아시아현대 미술청년작가전》, 세종미술관(서울)  
2025 《Reflore : 다시 피어나는 감각》, 노들갤러리 1관(서울)  
2025 《The Situation and The Story》, 노들갤러리 2관(서울)  
2025 《예술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모두미술관(서울)  
2025 《또 다른 시선, The Other Perspective》, 노화랑(서울)  
2024 《서울 모던아트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2024 《다르고 특별한》, 노들갤러리 2관(서울)  
2024 령트멍 아트페어, 롯데스카이 120F(서울)  
2024 《What's in My Bag》, 성수 언더스탠드에비뉴(서울)  
2023 《Bridge4Us 경계를 넘어서》, 갤러리인사아트(서울)  
2022 《우리의 세계 Part 2》, 마롱197(서울)

## 수상

---

2024 제3회 발달장애인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 입선  
2023 꿈티움 그림이야기 공모전 우수상  
2023 제33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입선  
2022 제32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입선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소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 분야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8년간 350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레지던시 및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예술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예술인에게 작업 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사업’과 창작활동 및 발표를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기관과의 제휴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	장애예술기획전 《The Sensory Tale 감각의 서사》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후원	효성그룹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기간	2025년 10월 17일(금) - 11월 6일(목)
참여 작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곽요한, 김승현, 김은정, 위혜승, 윤하균, 허겸

총괄	서울문화재단    창작기반실 예술의전당    시각예술부
운영	서울문화재단    주한식, 한정희, 김채영, 임채미 예술의전당    배민경, 정다미, 이한아름
전시 기획	아트블렌딩    장윤주, 임예진, 김누리
공간 조성	지에스애드컴
그래픽 디자인	웅스튜디오 송영웅
전시 영상	안형준
오디오 가이드	박혜랑
수어 가이드 영상	종합선전 최경윤
수어 해설	김선미(수어통역사), 황진(농인통역사)
쉬운 해설	소소한 소통
사진	PONEF 신오석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발행인 송형종, 이재석  
발행일 2025년 11월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 및 해당 저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